



MS 창업자 빌게이츠, 모교 초청 강연

재학생 3백여 명 대상
창의적 도전정신 강조



빌게이츠는 모교 공대 李愚日학장과 대화를 나누고,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모교 홍보팀 사진제공·관련기사 14면>

서울대의 아트비전 인프라 구축

미대 발전기금 조성
전시회에 180여 점



모교 미술대학발전위원회 金映世위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미술대학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관악출추

1970년대 초 5월 서울 용두동 사범대 캠퍼스. 평일 정오엔 어김없이 불프 페라리의 '성모의 보석'이 흘러나왔다. 모교 유일의 서울대 방송국(SUB)이 낮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팝과 학우들 귀에 익숙한 클래식이 번갈아 소개됐고, 가끔은 교내 소식도 나왔던 것 같다. 오후 강의 시작 시간인 12시 50분. 메리 홉킨스의 '굿바이'로 교내 방송은 송출을 마감했다.

2013년 5월 관악캠퍼스. 교내는 조용하

다. 서울대 방송연구회(SUB)라는 동아리가 있지만 매학기 초에만 시험 방송을 내보낸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몇 개의 유튜브 동영상만 떠 있다. 그것도 외부 콘텐츠가 대부분.

2025년 세계 Top10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 방송센터 개국, 시급하다

모교에 방송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를 느끼게 한다.

종이매체의 시대는 갔다. 방송·통신·온라인이 융합하는 시대다. 총동창회가 70억원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는 동영상 강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강의의 질을 높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 불가결의 수단이다.

질 높은 동영상 강의는, 강의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제작과 송출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지금 모교에서 동영상

강의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곳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 대학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원이다. 이들 조직은 업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교를 대표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시

급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서울대 방송센터(SNU Broadcasting Hub) 말이다. 최근 언론정보학과가 방송센터 설립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계획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된 제작 기능을 통합하고, 송출 기능까지 갖춘 방송센터가 조속히 개국해 서울대의 고품위 강의를 지구촌 전역에 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것은 등록금 인하와 사교육 완화, 동문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모교 당국과 총동창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尹在錫 OBS객원해설위원·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 당연히 책이 덜 팔리고 있다. 실제로 10년 전에 전국에 6천 개소에 달하던 서점들이 이제 1천5백 개소도 채 안 된다. 우리나라의 출판은 1년 매출이 약 4조원 가까운 시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린이 도서나 초·중·고 참고서이고 실제 순수 학술 출판사는 시장 규모가 다 해봤자 수백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전반적으로 책이 안 팔린다 보니 학술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출판사들은 거의가 적자로 학교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거나 외부에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수가 많다.

흔히 책은 안 보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정보만 보아도 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의료정보나 다양한 예술 교양적 지식들을 책을 사지 않고 인터넷에서 얻는다. 대영백과사전이 매년 출판하던 것을 멈추고 그 위치를 위키피디아가 대신하게 된 것을 보면 문자로 된 책의 한계와 빠르게 확대되는 멀티미디어의 지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다. 지식의 생산자들이 대학 교수 같은 전문인들 이기보다 요즘에는 인터넷 콘텐츠에 참여하고 스스로 정

보를 올리기도 하는 일반 군중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중이 만들어 내는 지식정보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얼마 전 보부상 이야기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들마다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일이 있다. 金周榮의 ‘객주’나 崔仁浩의 ‘상도’가 독자들에게 주었던 감동을 영상으로 다시 창조해낸 결과라고 본다. 그러면 ‘객주’나 ‘상도’ 같은 보부상 관련 소설들이 옛날에는 없다가 갑자기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 후기 보부상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연구업적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상당한 대중적인 지식 콘텐츠들도 사실은

서울대 출판문화원이 할 일

金 鍾 瑞

(종교72-76)

모교 출판문화원장



학계의 깊은 원전 지식의 창출이 선행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은 바로 이런 원전 지식을 생산하는 데 그 첫째 존재 의의를 두고 있다. 해마다 학술원 선정 우수도서에 다른 출판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책이 뽑히는 것이 바로 보람이다.

사실 우리나라 학문의 거의 모두가 따져 올라가 보면 서울대 각 학과의 역사적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는 ‘SNU 스토리 플러스사업’도 벌여 왔다. 예컨대, 서울대 조각과 출신들 중심 한국 조각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엮어 놓은 ‘빌라드르와 예술가들’, 한국신경외과학의 선구자인 沈輔聖교수의 전기를 다룬 ‘심보성’, 또 한국 정치학의 선구자였던 閔丙奩교수의 이야기를 쓴 ‘공삼 민병대 교수의 정치학’,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로서 서울대 수의학학을 이끌어 준 스코필드 박사의 자료를 모아 놓은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등은 정말 서울대의 귀한 이야기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문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서 생각한다. 아주 최근에는 한국 사회의 최고 인맥이라고 여겨졌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서울법대시대’가 올 초에 정년을 한 崔鍾庫교수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우리 나름의 원전 지식을 발굴 체계화하고, 서울대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문공동체의 성과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바로 서울대 출판문화원이 할 일이다.

관악시단

팽이채 그림다

李 秀 千(사회65-72)시인

팽이처럼
온몸에 매 맞으면
고통이 삶인 것을

이제는
뒤뚱거리는 어지러운 나이
밀등치라도 후려쳐다오

빙판에서
기우뚱거리던 팽이도
살갑게 때리면 살아나던데

고살길 틈새라도
용케 제자리 잡으면
계속 돌아주던 팽이

헝겂꼬가리 몇 가닥에
삶을 구걸하는 팽이
소나무 팽이는 넘어져야 된다

동문칼럼

오늘날 스마트(SMART)란 말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란 뜻은 ‘polished, refined, elegant, sharp, witty, stylish, vivid’ 등으로 우리말로는 ‘세련된, 빈틈없는, 재치있는, 약삭빠른, 맵시있는, 신뜻한’ 뜻으로 사전에 풀이돼 있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스마트 TV, 스마트 금융, 심지어 스마트 CEO까지 등장해 디지털 시대를 주름잡고 스마트란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How to Live Smart’란 광고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과연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생각 끝에 SMART란 낱말을 구성하는 첫 자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며 지켜야할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관을 고찰해 보게 됐다.

SMART의 첫 번째 철자인 S



丁 靑 燮

(영어교육52-57)

前북경어문학원 원장

아니고 생명있는 유정물 모두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다.

세 번째 철자인 A는 ‘Attractiveness’로 매력과 유혹으로 풀어본다. Fashion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매력은 성적감정의 유혹뿐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 큰 위력을 떨치고 있다. 패션은 발명의 힘이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과 통한다. 그러나 사치와 허영에 정신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번째 R은 ‘Reliability’로 신뢰와 믿음이다. 오늘날 돈 앞에서는 신뢰와 믿음, 상호 의리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1%의 최고 부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배력은 정치, 사회, 경제,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돈의 위력이라 하겠다. 여기서 돈이 만능인 사회에서 ‘신뢰가 만능’인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 철자인 T는 ‘Truth’로 진리와 진실이다. 진리는 우주적인 가치 즉 첫 번째 가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

‘How to Live Smart’에 대한 고찰

는 ‘Symbiosis’로 풀이한다. 이는 공생·공영의 뜻을 가진 낱말로 인간과 인간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상호 상생하고 상호 변형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초고속으로 개벽해 가는데 정신문명은 오히려 후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들이 비도덕적 비윤리적 삶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공생·공영의 지구촌 낙원세계를 건설하는데 집중해야겠다.

다음 두 번째 철자인 M은 ‘Mercy’로 자비와 은혜로 풀어본다. 이는 사랑과 은혜를 서로 베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인간만이

다. 진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가치와 덕목의 기반이다. 결국 모든 것을 진리에 따른다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우리 서울대인은 ‘진리는 나의 빛’이란 Logo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자비, 매력과 신뢰 그리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자기 완성은 물론 자기 분야에서 오늘의 시대적 과제에 진리의 빛을 비춰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사회 건설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을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이 되겠다고 하겠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鍾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旻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金貞美, 邊廷洙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다. 굳이 오래 사는 데 연연하지 않더라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소망일 것이다. 이런 소망을 반영하듯 평생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수칙이라든지, 무병장수의 비결 등 건강 유지의 핵심 비결로 정리된 수칙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 10훈’은 새겨들을 만하다.

첫째, 소노다소(少勞多笑) : 화는 적게 내고 자주 웃어라,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노할 때마다 늙는다(一笑一少, 一怒一老)는 말도 있다. 분노할 때는 몸에서 독소가 나오고 즐거워 웃을 때는 몸 안에서 이로운 호르몬이 샘솟는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말을 한다. 웃음은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다.

둘째, 소번다면(少煩多眠) : 걱정은 줄이고 잠을 많이 자라는 말이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현대인 대다수가 잠이 남아돌기보다 모자라서 걱정이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것도 밤에 잘 자는 것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불면의 원인이 된다. 걱정을 덜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셋째, 소욕다시(少慾多施) : 욕심을 적게 하고 많이 베풀어라. 아까운 것이 많으면 쾌히 베풀 수가 없다.慾이 나를 위해 쓰거나 모으는 마음이라 한다면, 施는 남을 위해(혹은 모두를 위해) 내어 주는 마음이다. 너그러운 마음은 그만큼 심신을 평화롭게 하고 이 웃과의 관계에서 긴장도 줄어들게 할 것이므로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동의보감 ‘건강 10훈’

넷째, 소언다행(少言多行) :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다. 옛 속담에 ‘십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십리 길이란 옛 사람들에게는 그리 먼 길이 아니었다.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가야지, 가야지’하면서 당장 일어나 걷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닿겠는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끝날 일이라도 실제로 손을 까딱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소승다보(少乘多步) : 탈 것을 멀리 하고 많이 걸으라는 말이다. 차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 모두 乘에 해당한다. 걷기는 일상에서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건강에 대단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소의다욕(少衣多浴) : 옷을 적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해라. 적게 입되 공기가 잘 통하는 헐렁한 옷이 좋다는 얘기가. 목욕은 피부를 자극해 혈액 등 체액의 순환을 활발히 해주는 효과도 있다.

일곱째, 소식다작(少食多嚼) : 음식은 적게 먹되 오래 씹어 삼켜라. 음식은 대체로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체내 대사와 필요 칼로리를 충족할 정도를 제한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래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현대인들의 성인병은 너무 많은 음식을 급히 먹어치우는 데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덟째, 소육다채(少肉多菜) :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고기를 안 먹어서 단명했다는 말은 없어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많다. 과일과 채소가 몸에 좋고 육류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다.

아홉째, 소당다과(少糖多果) : 단 것을 적게 먹고 과일을 자주 먹어라, 과일은 일종의 완전식품이다. 씨앗 하나를 온전한 생명체로 싹 틔우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평생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염다초(少鹽多醋), ‘짠 것을 줄이고 신 것을 자주 먹는다’를 꼽는 경우도 있다. 신 음식은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열째, 소후다박(少厚多薄) : 맛이 진한 음식을 줄이고 담백 소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라. 개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도락을 즐기더라도 진한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즐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장학연구지원사업 소위원회 활성화

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1차 사업 보고·2차 계획 논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1층 파인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2013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학연구지원사업은 모교의 세계 초일류 학과·학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주요 강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회가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별 소위원회를 두고 실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한동대 崔道成부총장, 모

교 林哲一교육부처장, 張素媛평생교육원장, 공대 李信亨학사부학장, 종교학과 裴哲炫교수와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회 위원 중 모교 경영학과 宋在鎔교수는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중 개발에 착수할 2차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의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차 동영상 강좌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수강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형태로, 모교만의 창의적·창조적 교육을 선도하는 강의 개발을 대원

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강좌 선정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교수의 강의를 우선 선택하며, 참여 교수에 대한 지원비로 1천5백만원을 기본 예산으로 책정하고 1차 강좌의 예산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본래 사업 취지에 위배됨과 동시에 성과에 있어서도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논제에 대해 “제한된 예산으로 ‘세계 초일류 학과·학부 육성 및 우수강의 동영상 강좌 제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선별 기준을 거친 소수의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林炅勳·林哲一·尹在錫·辛鉉雄·金演洙·李豪榮·姜秉南·孔大植동문

교육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

프로그램 공모·운영 방식 결정

본회는 지난 4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교육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 2013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교 林哲一교육부처장,

기초교육원 姜秉南부원장, 사회대 林炅勳교무부학장, 언어학과 李豪榮교수, 의대 내과학교실 金演洙교수,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을 비롯해 본보 尹在錫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 중 모교 산

업공학과 洪裕錫교수는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공모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교육혁신 프로그램은 공모 기간을 3개월로 정해 학과별로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지난해 사업성과가 심사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이후 사업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2차 사업비는 1차 사업의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에 추가 지원한 후 신규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를 살려 사업비 집행의 중점을 교육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두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Post DCO’ 진행 시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4월 16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朴健培회장을 비롯해 韓星熙·吳智延·金龍浩·孫潤熙부회장, 모교 치의학대학원 安碩濤학생부원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신입회원의 치과계 적응을 위한 ‘Post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朴健培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내기 치과 의사들의 진로 유형과 취업 실태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載)

해외 강의동영상 자문회의

해외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검토

본회는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동 ‘홍영재정국장’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위원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이인 모교 李基俊 前총장을 비롯해 모교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張素媛평생교육원장, 서강대 姜榮安국제인문학부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자문위원 중 전주대 高健총장 등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1차로 선정한 17개 강의 중 해외 명문대학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coursera’ 및 ‘EDX’의 10개 강의를 학교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웹사이트와 MOU 등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해외대학 동영상 강의 활용에 있어서 모교 웹사이트 내에 외부 공개형 콘텐츠를 불러와 시청하는 기능, 강좌별 분류 및 검색 기능 등의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논의했다.



朱光逸·朴榮姬·廉仁燮·辛永茂·鄭熙彩·鄭起勝 동문

동창미전에 1백여 작품 전시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4월 21~29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제2회 동창미전을 개최했다.

1백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모교 법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미적 역량과 작품세계를 확인하고 동문사회 근간에 흘러온 예술

적 명맥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裴基攻(법학50-54)·尹斗植(법학53-57)·李漢春(법학53-57)동문 등 22명이 그림, 金容元(법학59-64)·盧滿柱(법학75-79)동문 등 4명이 사진, 鄭熙彩(법학48-52)·鄭起勝(법학49-57)동문 등 11명이 서예 작품을 출품했다.

21일 열린 개막식에서 이번 전시회 廉仁燮(행정63-67)운영위원장은 “법대 동문들의 타고난 감

성과 다재다능함에 경탄했으며 바쁜 현실 속에서도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해온 동문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며 “원로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분에 넘치는 치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辛永茂회장은 “선후배간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동문들의 순수함과 저력을 보여주는 미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모교 법대인의 위상과 격이 한층 빛날 것”이라 말했다.

모교 법대 丁相朝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 법대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시작으로 지난 1백18년간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사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며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1년 열린 창립전에 이어 동문들이 이룬 문화활동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2명 기증 접수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4월 2~30일 4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8명(본보 421호 8명

게재)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宋吉相(화학48-54)동문 : 예과 최종기념잡지 ‘청량리’

(1948년) ▲俞千根(교육60-64)동문 : 교육대학원 합격증명서, 열람증, 기자증, 학생증, 버클, 사대종합예술지(1962년), 석사 학위논문(1969년) 등 ▲金字振(국악73-77)동문 : 학군단 후보생시절 사용 배지 및 와펜 등 ▲黃仁子(대학원78-82)동문 : 대학원 등록카드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대학신문(1978년)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나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崔明珍회장 재선임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4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崔明珍회장을 재선임하고, 감사에 任良淳(가정교육64-68)동문을 선출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목련회 장학금을 비롯해 朱貞一·李義淑·禹敬子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했다.

한편 모교 COE합창단(단장 李秉錫)이 특별공연을 펼치며 신입회원들을 환영했다.

모교 교수진과 간담회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동송동 ‘마술과리’레스토랑에서 모교 교수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동창회 梁光姬회장, 金正順·宋慶子부회장, 朴勝賢재단이사, 金善姬·洪希政·최은하 이사, 金明愛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朴賢愛학장을 비롯해 宋美順·李明善·李仁淑·金惠媛·方京淑·朴妍煥·고진강·鄭在媛·강승완·채선미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동문 화합, 모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만평

李元馥



연회비 책정·연간일정 논의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3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 3층 ‘소담마루’에서 李文漢회장을 비롯해 姜寅求교문, 柳判童명예회장, 장학재단 鄭英彩이사장 등 20명의 임원이 참

석한 가운데 2013년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연회비 책정 및 납부자 명단 작성, 회칙 개정, 정기총회를 비롯한 연간행사 일정 수립 등 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25회 동기회에서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장학기금 5백만원을 동창회에 출연했다.

장학금 수여식 열어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지난 4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대학원장실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崔鍾庫회장과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승민(수의학 석사과정)·김승윤(성악 석사과정)학생에게 각각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관악캠퍼스 법대 서양법학관 유기천세미나실에서 崔鍾庫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대학史 포럼을 개최했다. (載)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

총회에서 여성언론인 역할 다짐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회장 申然琇)는 지난 4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50여 명의 동문 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李炯均부회장, 관악언론인회 裴仁浚회장, 그리고 모교에서는 任廷基기획부총장, 기획처 姜竣鎬협력부처장, 여성가족부 趙允旋장관

등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申然琇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고 특히 여기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이 힘든데 우리 여기자 모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동문 언론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



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은 “우리 관악언론인들이 모교와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실 것으로 믿는

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관악언론인회 裴仁浚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가끔은 이렇게 모여 긴장도 풀고 교류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며 “이 시간만큼은 선후배들을 익히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趙允旋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여성동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여성가족부에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이라는 주요 과제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 50명은 찾아낸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본회 林光洙회장이 커피잔 세트와 SNU 장학빌딩 백서(증보판)를 선물했다. (邊)

金鳳九회장 연임·감사 2명 선출

미대동창회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도화동 SNU 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美惠(회화78-82)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2012년 사업 및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 회장을 제19대 회장으로 재선임했으며, 李炳學(회화62-66)·李種福(응용미술62-66)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金화장은 “힘에 부치더라도 동창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3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

AMP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鐘燮)는 지난 4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13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鐘燮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는 지난해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있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골프대회와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진 것은 물론 모교와 사회에 기부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모든 동문의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여러분의 금지와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동창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모교 경영학과 安相炯(원자력공학69-73)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수상했다. 安교수는 시상식 이후 진행된 2부 조찬강연회에서 ‘경영학 교수 :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3부 총회에서 2012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가결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徐在瑛 作



섬마을, Oil on canvas, 45.5×37.9cm, 2009

<작가약력>

- ▲1971~1975 모교 회화과 졸업
- ▲2007 제1회 개인전 (관훈동 모로갤러리)

- ▲2009 제2회 개인전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 ▲2012 제3회 개인전(부산 벅스코)
- ▲회원전 및 단체전 다수
- ▲現한국미협·부산미협·한울회·부산 여류전·부산 사생회 회원

관악산서 시산제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梁好錫)는 지난 3월 9일 서울 관악산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개최했다.

동문들은 관악산을 등반하며 한해의 무사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서로 친목을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산행을 마친 후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崔炳五(3기 패션그룹 형지 회장)명예회장이 30만원, 梁好錫(8기 테크노에어 포트폴 회장)회장이 1백만원, 모영일(5기 지앤지커머스 대표)감사가 등산타월 1백50점과 도서 50권, 조창섭(10기 영신물산 회장)

고문이 의류 10점을 협찬하는 등 많은 동문이 금품을 출연했다.

공로패·감사패 수여

치대 여성동문회

치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崔明鎭)는 지난 4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崔明鎭회장은 인사말에서 “후배는 경험과 전통을, 선배는 새 시대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서로 화합의 장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朴永淑(치의학49-55)·金貞林(치의학50-56)·車惠榮(치의학61-67)동문에게 공로패를, 白定和(치의학84-90)·崔種姬(치의학87-93)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가 끝난 후 鄭泰鍾(치의학84-90)동문이 ‘현대 건축 기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동문 친선의 장 가져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4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등산대회 겸 동문 친선의 장을 마련했다.

모교 사대 禹龍濟학장부학장, 서울교대 朴鵬鵬(국어교육49-53) 명예교수를 비롯한 60여 명의 동문이 세 코스로 나눠 관악산을 등반한 후 잔디밭에 모여 오찬을 즐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선후배와 인사를 나누고, 추억의 명곡을 함께 부르며 친목을 다졌다.

金榮宰회장 선임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高在旭)는 지난 4월 23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高在旭회장의 인사말과 원로 동문인 대한요업총협회 南基棟(화학공학43졸)명예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과 회무 및 결산보고를 진행했다. 또 동창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동창회 운영 방안 변경’ 및 ‘임원 및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대덕전자 金榮宰(공업화학77-81)사장을 선임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3월 16일 서울 관악산에서 2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춘계등반모임을 가졌다. 춘계등반 모임은 화공산우회(회장 黃運顯)의 협조 아래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載)



모교 법학부 崔鍾庫 명예교수

정년기념 저서·역서 전시회

모교 법학부 崔鍾庫(법학66-70) 명예교수가 지난 4월 12일 모교 법대 서암법학관 2층에서 ‘崔鍾庫교수의 법학세계’를 주제로 저서 및 역서 전시회를 열었다.

5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1981년부터 32년간 모교에서 법사상사학을 연구하며 국제적으로 한국법과 동아시아 법철학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한崔 명예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본회 林光洙회

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劉鐘海·李相赫·孔大植부회장, 그리고 모교 李壽成 前총장, 吳然天총장, 梁承泰대법원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李壽成 前총장은 축사를 통해 “崔 명예교수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 학문, 역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40여 년간 70권의 책을 저술할 정도의 성실성을 지켜왔다”며 “최고의 명예를 안은崔 명예교수와 그의 명예로운 성취를 도운 부인을 위해 박수를 보낸다”

고 전했다.

崔 명예교수는 ‘이론 것과 못 이론 것’을 주제로 가진 교별강연에서 “모교 법대 교수직은 학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며 살아왔다”고 밝히고 “이제 법학은 유능한 후배들에게 남기고 보다 근원적인 인간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국민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전심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학자들의 뒤를 이어 32년간 노력한 발자취가 모교 법대 학술사에 한 조각 의미있는 몫부림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소회를 전했다.



鄭鎮浩·姜寅求·張龍鐸·金大德·任廷基동문

신품제약 張龍鐸 회장

약대 金大德 교수에 학술상 시상

신품제약 張龍鐸(약학55-61 신품호원학술회 이사장)회장이 지난 4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2회 신품호원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 특지장학금으로 2억원을 출연한 張 회장은 이날 모교 약대 金大德(대학원85-87) 학생부학장에 학술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 본회 孔大植·姜寅求 부회장, 모교 任廷基 기획부총장, 약대 鄭鎮浩 학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金 교수의 수상을 축하

했다.

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金大德 교수의 훌륭한 연구 업적에 찬사를 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한 뒤 “내년에 모교 약대의 신약개발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신약개발 분야가 기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수상자인 金 교수는 지난 2003년 모교 약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아왔다. (載)

절약비법

“부장님은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사모님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 오히려 혈압이 올라.”

“그런데 왜 넣고 다니세요.”

“그래야 지갑을 자주 안 열 거 아냐.”

천당에 가려면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준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뇨!”라고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 “아뇨!”였다.

“그럼 내가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당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다섯 살 된 녀석이 소리쳤다.

“죽어야죠!”

부전자전

성적이 나쁘다고 아빠에게 실컷 꾸지람을 듣던 여덟 살 꼬마가 하는말,

“아빠, 난 왜 공부를 못할까요? 유전 탓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독자제보 환영)

5·6 월 행사 캘린더

5월 26일(일) 오전 9시 • 의대동창회 등산대회 서울 도봉산 (문의 : 02-740-8183)	5월 30일(목) 오전 6시 • 치대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시 한화CC (문의 : 02-742-7082)
5월 27일(월) 오전 11시30분 • AIP동창회 등산대회 경기도 여주시 렉스필드CC (문의 : 02-878-9467)	5월 31일(금) 오전 11시50분 • SPARC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 (문의 : 02-880-4353)
5월 29일(수) 오후 12시 • 약대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시 88CC (문의 : 02-701-3456)	6월 16일(일) 오후 12시 • 의대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이천시 뉴스프링빌CC (문의 : 02-740-8183)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결혼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픈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간호대동창회 梁光姬회장 (前적십자간호대 학장)

간호대학동창회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적십자간호대 梁光姬(간호 68-72)前학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梁회장은 취임 이후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2년의 임기 동안 각 동기회, 지부, 직능별 모임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창회 현황은.

“전체 회원 수는 4천여 명으로, 직업별 주요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회원이 6백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국 각지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을 합쳐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행사 일정은.

“먼저 6월 중 모교와 함께 제5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모교방문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63년에 졸업한 1회 동문들이 졸업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전체 회원 연락망을 재구성하고 회원 명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회보 발행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신 내용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모바일 뉴스레터 및 SNS를 통한 소식 전달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임원 구성은 어

“소모임간 네트워크 활성화 주력”

“각 동기회나 지부, 직능별 모임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행사와 여행 등을 계획 중입니다. 또 지난 2007년

떨게 하셨습니다.

“부회장에 韓銀姬(간호68-72)·崔庚淑(간호70-74)동문 등 7명의 동문을 선임

했으며 당연직 부회장, 상임이사, 업무별 담당이사 등으로 20여 명의 동문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창회에 비해 회장단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회원들의 동창회 참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지금까지 동창회는 항상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모교 발전의 요람이자 젊은 동문들도 스스로 찾은 안식처로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동창회, 포근함을 안겨주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梁회장은 서울에서 출생해 창덕여고와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모교 병원 간호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에서 세계보건기구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간호교육전문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載)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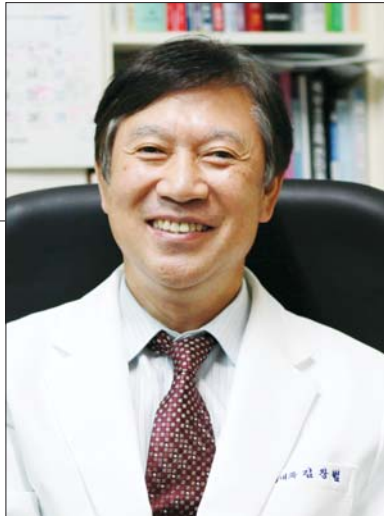
안양지부동창회 金昌範회장 (해성내과의원 원장)

안양지부동창회는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해성내과의원 金昌範(의학70-78)원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金회장은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동문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동창회 회장은 ‘하고 싶어서 맡는 자리’라기보다는 ‘해야 될 상황에서 피하지 말고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알 같은 서울대인이라는 외부의 비아냥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활동 등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또 선후배간 격의 없는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취미활동이 있다면.

“문화·체육활동으로 화합 유도”

“전체 회원 수는 1백30여 명이며, 학부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가을에 두 번 열리는 정기총회를 비롯해 매 홀수 달에 운영위원 모임을 갖고 있죠. 특히 단과대별로 경조사 등의 모임도 꾸준히 갖고 있어서 동문간의 끈끈한 정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수석부회장에 韓楠熙(항공공학75-79)동문, 각 단과대학 대표로 선출된 朴榮麟(기약71-78)·任承宰(의학75-81)·張永蘭(국약75-80)·柳龍茂(약학76-80)·鄭重熙(의학78-84)·李永稷(철학79-86)·鄭祥喆(치의학82-88)동문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金雲基(응용미술78-82)사무국장과 8명의 운영위원이 동창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뭐든지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브레인 스포츠로 불리는 비둑과 사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시대의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생기듯 선후배간 모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서로가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제주시 오현고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 안양시 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양시 바둑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美)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SPARC동창회 金鍾顯회장 (썸크 대표)



모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SPARC)동창회는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썸크 金鍾顯(19기)대표를 제7대 동창회장에 선출했다. 동창회 상임수석부회장을 지낸 金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주

역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동창회 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鄭淳伯 전임 회장께서 표명하신 ‘희망과 감동을 주는 SPARC’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모교 자연대 교수님들과 회원사간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상용화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SPARC동문들에게 한 말씀.

“회원 개개인의 일들이 문제없이 잘 되도록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연대와 공동연구과제 추진”

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취임 이후 근황은.

“최근 2013년도 조직구성과 경영계획을 확정하고 23기 입학식과 워크숍 참석을 통해 동창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간 교류를 위한 골프모임과 1박2일로 진행할 워크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현재 22기까지 배출됐고 회원 수는 7백여 명이 됩니다. 기수별 모임은 6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창회 전체행사에도 20~30%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전문가들이 각각의 영

생각합니다. 더불어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창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운영하고 계신 ‘썸크’에 대해 소개를.

“썸크는 제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를 나와 1991년 설립한 정밀검사기기 개발 및 제조회사입니다. 현재 1백20명 가량의 사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과 중국 상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金회장은 1983년 국제기능올림픽 기계제도 부문 금메달리스트이며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기능경기 대회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기능한국인회 이사, 기능올림픽 선수협회 이사 및 부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邊)

LS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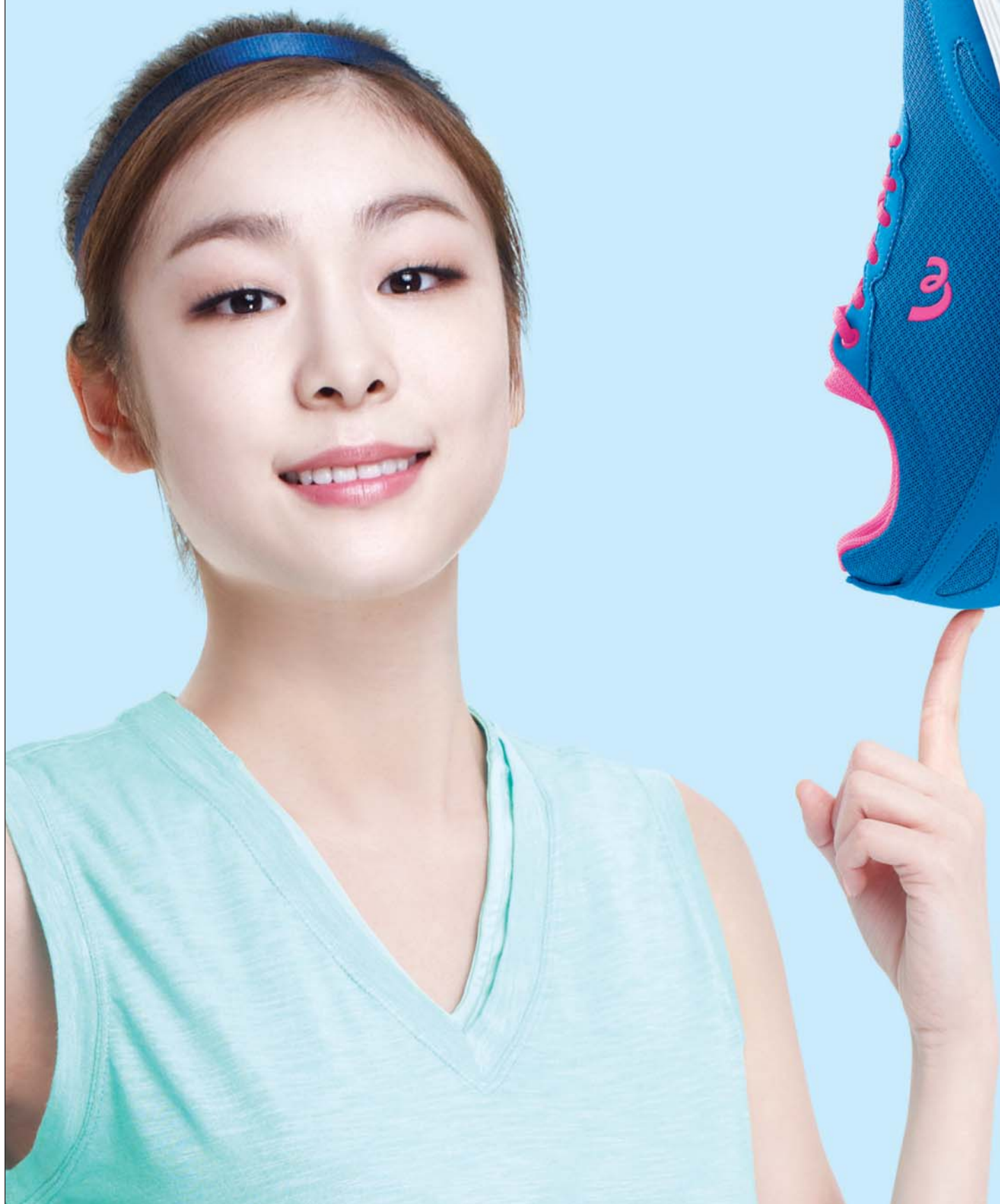
PROSPECS

EXTREME LIGHT!

130g의 초경량, 쿨 디자인
W 130



W LITE PLUS 1
(130g, 230mm 기준)



PROSPECS

화제의 동문

이노디자인 金 暎 世대표

수많은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해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온 모교 미술대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제예술계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미술대학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노디자인 金 暎世(응용미술70-74)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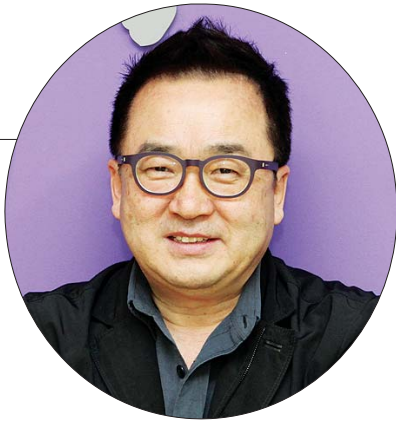
최근 모교 미술대학발전위원회는 ‘예술시대의 선도적 미술교육’, ‘세계 미술계 10위권 대학’, ‘미술기반 사회가치 탐구’라는 목표를 세워 ‘아트비전 2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연구활동 등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모교 발전기금과 전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미술대학 발전기금 조성전시회’를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관악캠퍼스 미술관(MoA)에서 개최했다.

‘金敏基’동문과 가수 활동도

金대표는 “미술대학 내부의 교육 혁신도 중요하지만 단과대학 전체가 디자인이라는 접착제로 융합돼 디자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표는 경기고 재학시절 ‘다이아몬드



미대발전위원장 맡아 기금 조성 추진 ‘박물관 나들길’ 등 한국브랜드 세계에 알려

포’라는 그룹의 싱어로 활동했으며, 모교 재학 중에는 ‘아침이슬’의 金敏基(회화69-78)동문과 ‘도비두(도깨비 두 마리)’라는 듀엣으로 음반을 내기도 했다.

“열여섯 살 때부터 디자이너의 꿈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미대에 입학했는데 신입회 환영회 때 경기고 동기인 敏基를 만난 거예요. 이미 ‘아침이슬’, ‘친구’ 등의 곡을 발표해서 스타였던 敏基와 함께 즉흥적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한 것이 계기가 돼 여학생들이 지어준 ‘도비두’라는 브랜드로 대학로를 활보했죠.”

공부보다 음악을 더 즐겼던 金대표는 모

범생도 아니었던 자신이 미술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사양을 했는데, 미술대학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주시고 또 오콘 金一鎬(산업디자인88-95)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아 저를 도와준다고 해서 위원장을 맡았죠.”

金대표는 미대 학생뿐만 아니라 경영대, 공대 등 디자인에 흥미가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진정한 ‘창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술력 강화와 벤처비즈니스의 부활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밑바탕은 이보다 훨씬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 즉 배려가 창조의 핵심이죠.”

‘디자인 엔젤’로서 후배 양성

바닷가재 요리에서 가스버너를, 여성의 액세서리에서 목걸이형 MP3 플레이어를 떠올리는 등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히트상품을 만들어낸 金대표는 디자인계의 지도자로 불린다.

“호기심을 가지면 창의적 발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참나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케치와 메모를 하죠. 교통체증으로 정체되는 시간에도 자동차 안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스케치했는데, 현재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통한 ‘박물관 나들길(서울시 지하철 4호선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 본관을 잇는 255m의 지하보도)’의 디자인은 金대표의 자부심이 표현돼 있다.

“한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태극기를 모티브 삼아 디자인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디자이너라는 저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은 40년 전에 품은 꿈의 일부분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 양성과 디자인을 투자해 창업자를 키우는 ‘디자인 엔젤’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것이 제 미래이고 이노디자인의 꿈입니다.”

디자인 후학뿐 아니라 수많은 청년의 멘토로 알려진 金대표는 자신만의 일을 찾아 도전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퍼플과 플(생산직 근로자인 블루칼라나 사무직 근로자인 화이트칼라에 속하지 않는 퍼플칼라의 근로자)’은 미래형 창조경제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확신했다.

“최근 미국 포레스터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직장 3백50만개가 없어진다고 해요. 자동차 컴퓨팅, 디지털 기술, 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해낸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조하길 소망합니다.” (美)

한의학연구원 金 鍾 悅책임연구원

조선 후기의 명의로인 東武 李濟馬가 저서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주장한 四象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특성에 따라 太陽, 太陰, 少陽, 少陰의 네 유형으로 나눠 진단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달리하는 한의학 이론이다. 이 같은 사상의학은 환자의 체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객관적인 진단법이 개발되지 않아, 그 이론 체계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적용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金鍾悅(건축78-83) 책임연구원은 한의학계의 해묵은 난제인 체질 진단체계 표준화에 대한 해답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기반을 둔 ‘사상체질 진단기’를 최근 개발하고 시제품을 공개했다. 金동문은 지난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몸담은 이래 각종 한방진단기기를 연이어 개발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사상의학 우수성 입증에 주력

金동문의 근무처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체계 구축, 한방 신약 연구 등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한의학 연구기관이다. 金동문은 사상의학 창시자 李濟馬의 이름을 딴 ‘이제마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며 협업을 촉진하듯 손목을 올려놓고 맥을



보는 ‘로봇 맥진기’, 혀의 색깔과 상태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로봇 설진기’ 등을 개발해 왔다. 최근 개발한 사상체질 진단기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기술력을 한데 모은 것으로, 공학과 한의학을 융합해 거둔 값진 결과물이다.

“사상체질 진단기는 안면정보, 체형, 음성, 설문응답 등 네 가지 자료를 분석해 대상자의 체질 경향을 해석합니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체질 전문 한방의료기관에서 6년여에 걸쳐 모은 3천5백개의 체질전형 샘플을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金동문은 이제마 프로젝트를 통해 사상의

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있다. 사상체질 진단기 개발은 그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전통의학계를 통틀어 봐도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진단프로세스 전반을 객관화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현재 외국인의 체질 데이터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사상체질 진단기는 향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사상의학의 세계화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입니다.”

‘사상체질 진단기’ 등 한방진단기기 개발 10월에 ‘진단·침시술·뜸자극’ 기기 상용화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시스템을 개발해 온 金동문의 연구팀은 오는 10월까지 사상체질 진단 시스템을 내장한 ‘통합 체질·건강 진단기기’의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단은 물론 레이저와 자기장을 이용한 침 시술과 고주파 뜸 자극까지 가능한 이 기기는 실버타운, 건강검진센터, 일반 가정 등지에 폭넓게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金동문은 공학도 출신의 한의학 박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한국건설기술

화제의 동문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26세 때 한의원에서 사상체질 진단 및 맞춤형 처방을 통해 20년 넘게 앓아 온 설사병을 완전히 고쳤다. 이 일을 계기로 사상의학에 매료된 金동문은 이후 경희대 한의학과에 진학해 한의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건축·토목공학’ 한의학에 접목

“사상의학은 미래 의료시장의 중요한 트렌드인 예방의학과 개인별 맞춤의학 구현을 선도할 우리 민족의 큰 자산입니다. 사상의학을 비롯한 한의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민족의 대학인 모교에도 한의학과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문들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마음을 더 크게 키워 가길 바란다”는 金동문은 인터뷰의 끝을 맺으며 동문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체질별 봄철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다.

“태양인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메밀묵이나 메밀국수, 재첩국 등으로 입맛을 돋우면 좋습니다. 소양인은 들나물 같은 봄채소를 많이 먹어 신장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태음인은 산에 올라 땀을 흠뻑 흘리며 폐 기능을 강화시키세요. 소음인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처럼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고, 쑥을 섭취해 비장 및 위장 기능을 촉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載)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바람막이 점퍼

₩228,000 ~ ₩242,000

₩99,000 ~ ₩109,000

냉감 티셔츠

₩70,000 ~ ₩113,000

₩39,000 ~ ₩59,000

CP 티셔츠

₩113,000 ~ ₩128,000

₩49,000 ~ ₩59,000

모자

₩36,000 ~ ₩42,000

₩19,000

바지

₩156,000 ~ ₩170,000

₩79,000 ~ ₩89,000



(주)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02) 548-6801, 6858 www.louiscastel.com



LOUIS CASTEL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창조경제 지원도..”

동문특 찾아서

방송통신위원회 **李 敬 在** 위원장



대 담 : 金昌均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지난 4월 17일 **李敬在**(사회60-64)동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방통위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李**위원장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을 훼손하거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책임이 따르는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 공보처 차관 이후 거의 20여 년만에 공직생활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요.

“공보처가 방통위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듯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임식 때 ‘복사꽃, 살구꽃까지는 없지만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어 진짜 고향의 봄에 온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방송통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 등을 거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신문·방송분야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보처 차관 시절인 지난 1995년 케이블 TV를 처음 시작하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뉴미디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공개이불 구축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덕분에 경쟁적으로 현재의 인터넷망이 빠르게 확산돼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요. 무엇보다 의정활동 기간에 통신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및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주 업무에 충실하면서 ICT 산업 육성에 지장이 되는 규제를 대폭 줄여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향후 정치적인 쟁점이 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익성이 보장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주요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컸고, 이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은 전체 GDP 및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 **李**위원장은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67년 동아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 한나라당 미디어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보처 차관 재임시 케이블 TV 도입을 추진해 ‘다매체 다채널방송’ 시대를 선도했다. 또 국회에서 뉴미디어와 콘텐츠 활성화, 방송시장 규제 완화, 미디어랩 도입, 통신요금 인하 등 정책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등 재원 확보 노력

‘4월회’ 활동으로 4·19 정신 계승

산업입니다. 반면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IPTV를 개발하고도 제도 미비와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면서도 방송통신 융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사에서 미래부와 의 벽을 허무는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4월 25일 미래부와 정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간다면 부처간 벽을 허물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분야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계속 정리돼야 할 것들이 있지만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력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소화해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점 정책으로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의 휴대폰 보조금 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배경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같은 휴대폰을 두고 누구는 제 값을 지불하고 사는 반면 누구는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경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 KBS 수신료에 대해 여러 차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계시는데, 가계 부담에 따른 국민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지요.

“영국 BBC의 경우 5년마다 금액을 산정, 현재 가구당 월 2만원의 수신료로 2011년 기준 전체 재원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KBS 수신료는 30년 동안 2천5백원에 머무르며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광고 비중(41%)보다 적은 38%에 불과해 공영방송으로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단순히 인상 여부만이 아닌 수신료, 광고, 국고 등을 얼마의 비율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국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베베밴드** 보컬로 활동했던 **이윤정** 씨가 따님이시죠. 위원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선 아버지가 계속 현역에서 활동하고, 특히 관련 분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역차별을 당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설치 미술가인 사위와 함께 음악과 무용, 미술이 융합된 새로운 퍼포먼스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한 딸을 이해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시절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대학을 입학한 해에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월 8일 입학하고 故 李萬甲교수님의 ‘사회학 개론’ 첫 강의를 들으러 간 날입니다. 선배들을 따라 종로, 광화문 일대를 돌며 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시위 중 일행들과 떨어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로 인해 시위대와 경찰간의 치열했던 순간을 모두 한 눈에 담을 수 있었지요. 당시 경찰들이 쏜 총에 버스 위에서 시위를 하던 많은 고교생들이 추락한 장면이 특히 기억납니다. 4·19혁명 참여자들이 만든 회고록에도 ‘벚꽃처럼 떨어졌던 4·19 영령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 4·19혁명을 기념하는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대학 선언문을 작성했던 3~4학년 선배들이 주축이 돼 ‘4월회’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20여 년 전 순수하게 4·19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 아직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며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국 최초 맹인 박사로 유명한 故 姜永祐박사께서는 강의를 하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3C’ 즉, ‘Competence, Character, Commitment’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리더가 된 사람들은 학창시절부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과 함께 인생의 목표를 위해 몸을 바치는 자세 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청문회를 하면서 살펴보니 모교를 비롯해 명문대를 졸업한 분들 중 실력은 출중하나 돈에 대한 욕심, 논문 표절 등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분이 보이더군요. 물론 훌륭한 동문들도 많이 계시지만 서울대인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Your Best Solution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의 생활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당신이 상상하고 꿈꾸던 미래, 코오롱플라스틱이 만들어갑니다.



“법인과 대학을 분리… 이사회 견제해야”

동문을 찾아서

모교 교수협의회 李政宰회장



대담 : 蔡耕玉(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논설위원

지난 3월 27일 모교 농생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李政宰(농공학69-73)교수가 제31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李교수는 지난 1960년 교수협의회가 출범한 후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당선됐다. 2천2백여 명의 교수 중에서 해외 연수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교수들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가한 1천3백43명 가운데 64%의 지지를 얻었다.

李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법인과 대학을 분리하고 ‘교수청원 및 소환제’를 통해 총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모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교수들이 법인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교는 1946년 설립된 이후 총장을 정부가 임명해 왔으나 1990년 학원민주화 쟁취를 기점으로 대학구성원이 선출하고 정부가 추인하도록 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사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에 의해 진리의 탐구와 학생교육의 전통을 이어갈 필요가 생겼고,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법인화를 단행했습니다. 당연히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모든 자율권이 이사회에 국한돼 오히려 법인화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대부분의 동문들은 법인화가 됐을 때 대학교도 기업처럼 운영되면서 이사회가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자율의 주체가 이사회에 국한돼 모든 사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것이며, 1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당연직으로 있는 총장, 부총장 2명, 차관 2명 등 총 5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사회 스스로가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의 모든 자율과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스스로 구성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소위 동종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행히 초대에 한해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어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절대권력 스스로 타락할 것이고 대학이 시비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1990년 민주화 시기 이전보다 더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교수협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현재의 법을 급하고 필요한 부분만 먼저 수정하자’는 단기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대학을 운영하도록 법을 전면 수정하자’는 장기적인 대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법인을 나눠 교육 및 연구 등의 기능을 법인에서 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이미 설치된 국립서울대를 정부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로 제한되고, 대학의 운영은 총

•李회장은

모교 농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농업토목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 연구원을 거쳐 지난 1994년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교수협의회 농업생명과학대학지부 총무, 정보화 전문위원회 위원, 평창바이오사업단장,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장, 학생처장, 캠퍼스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만금위원회 위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겸무 교수, 기후변화센터 정책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교수협의회 농생대지부 총무 시절 교수 ‘연구년 제도’를 제안·정착시킨 바 있다.



‘교수청원 및 소환제’·‘옴부즈맨 제도’ 실시

학부장·학생처장·캠퍼스기획단장 등 지내

장과 교수, 학생 구성원이 운영하는 자치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 단기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법의 전면 개정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검토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사회의 자기선출 문제와 총장의 선출문제를 바로 잡아 총장이 대학구성원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먼저 교직원의 대표기구인 평의회를 대학구성원의 대표로 다시 구성된 뒤 평의회에서 총장과 이사를 추천하고 또 임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게 한다면 상당한 대의적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법규는 총장의 해임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만 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장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총장의 해임요청 권한을 평의회가 갖게 된다면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NO’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의 책임경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선거 당시 정관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교수청원 및 소환제’의 근거를 마련해 총장과 이사회를 견제하겠다고 밝히셨죠. 지금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간선에 의해 결정되는 지금의 법인화 체제는 임명권자의 간섭과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외부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수총의에 따라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교수청원제’와 정책조직의 개선을 요구하는 ‘교수소환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교수들의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교수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교수 개인이나 학과 혹은 학부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이해의 차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의 창의적인 연구와 학생의 피교육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내에서 이뤄지는 갈등의 문제와 의견차이 해소에 적극 참여해 교수의 학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수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연구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은 ‘대화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은 소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연구 성과로만 평가를 받다보니 ‘학생들과의 소통에 의해 다음 세대를 양성한다’는 대학 본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적합한 학과가 있고, 반대로 실습에 적합한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연구 성과로만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모교는 1백50종류 이상의 전공이 있으며 각 전공 내에도 수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을 몇 가지 잣대로 계량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학문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 본연의 업무가 대학평가 순위에 매몰되다 보니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교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학문에 따라 연구가 우선시 되는 분야와 교육이 우선시 되는 분야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학과 특성상 논문이 아닌 공모를 통해 입상해야만 하는 경우 관련 분야 공모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음에도 4번의 우승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학과 특성에 맞춰 평가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죠.”

— 모교 ‘평의회’ 또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교수님들로 조직된 만큼 상호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아시다시피 법인화 이후 평의회는 심의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하됐습니다. 이로 인해 맡겨진 것에 대한 심의 외에는 할 수 없죠. 소위 불임기구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는 의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비법정 조직이라 공문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얕은뱅이’와 ‘소경, 병어리’ 상태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협력하고자 합니다.”

— 교수협의회장으로서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교는 지금 세계 초일류대학이 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라는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동창회에 섞이기는 어렵겠지만,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과 채찍질을 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스코필드 박사 서거 43주기 기념식·장학금 전달식·특강 열어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4월 12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서거 43주기를 맞아 제11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수의과대학 주최로 개최해온 기념식을 올해부터 모교 행사로 확대해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스코필드 박사 묘역 참배, 추모기념

식, 장학금 전달식, 추모 특별강연 순으로 열렸다.

기념식에서 모교 吳然天총장, 金能鎭독립기념관장, 劉進호랑 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장 등의 기념사 및 추모사가 있었으며, 호랑 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鄭雲燦명예회장이 관악구 및 수원시 중학생 3명과 모교 수의학과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모교 사회학과 愼鏞廈(사회 57-61)명예교수,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홍선표 책임연구원, 캐나다 온타리오대 Ian Barker교수가 특별강연을 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기념사에서 “인간의 육신은 유한해 소멸하지만 위대한 정신은 영원하다”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헌신적인 삶을 본받는 오늘의 뜻 깊은 자리가 스코필드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배우는 경건하면서도 소중한 의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3·1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서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스코필드(한국명 石虎淵)박사는 1958년부터 모교 수의과대학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하며 1970년 서거할 때까지 후학을 가르치고 한국의 고아와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그는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고자 조직된 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유고집을 출간한데 이어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 동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 ‘도전정신과 혁신’ 강연 재학생 3백명과 대화의 시간 가져

지난 4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모교 재학생 3백여 명을



대상으로 ‘도전정신과 혁신’에 대해 강연했다.

공과대학 李愚日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빌 게이츠는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처럼 젊음을 즐기고 무궁무진한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란 흔치 않다”며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로 진출해 버리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자퇴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尹相直) 초청으로 20일 방한한 빌 게이츠는 모교 강연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경영진 접견, 국회 강연, 朴槿惠대통령 면담 등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빌 게이츠는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문제, 에너지 등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MS 퇴임 후 2000년 빌 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기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전시회

미술대학

미술대학(학장 李舜鍾)은 지난 4월 26부터 5월 9일까지 관악캠퍼스 미술관(MoA)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을 주제로 발전기금 조성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대학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모교 발전기금과 전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4월 26일 열린 개막식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李炯均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미대발전위원회 金曉世위원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李舜鍾학장은 “미술대학 발전기금 조성전시회는 최근 미술대학이 추진해온 ‘아트비전 2020’의 일환”이라며 “교육 인프라 구축과 예술복합연구동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의 취지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金曉世위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미술대학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중견 작가, 현직 교수 80여 명이 동·서양화, 조소, 공예 작품 1백80여 점을 출품했으며, 이 작품들의 수익금 50%는 작가에게, 나머지 50%는 미술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개최에 앞서 지난 4월 16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교 후원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가졌다.

세계은행과 MOU 체결 개발도상국 지원에 앞장서



모교는 지난 4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吳然天총장과 金堉耑재(사진右)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은행(World Bank)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교와 세계은행은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협력분야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콘퍼런스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등과 함께 기술·농업·의료·보건·공공정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회공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교 기술지주회사

가족회사 연찬회서 비전 소개

기술지주회사(대표 洪國善)는 지난 4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가족회사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등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인사말에서 “모교를 선택해 주신 기술지주 가족회사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용기의 뿌리인 신뢰에 부흥하기 위해 모교 교수들은 교육

과 연구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격려사에서 “모교가 2025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진입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바로 이 과정에서 모교 기술지주회사와 가족회사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辛鶴用(정치71-75)위원장과 모교 행정대학원 羅卿暖(사법 82-86)초빙교수가 축사했으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활동 보고 및 향후 비전 소개가 있었다.

모교가 가진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는 이사회, 지식재산관리본부, 운영본부로 구성돼 있으며, 에스데이리푸드, 에스앤마니커 등 20여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美)

한국정보통신 趙天植 前대표

중앙도서관에 50억원 쾌척

한국정보통신 趙天植 (정치45입)前대표가 모교 중앙도서관에 50억원을 출연했다.

모교는 지난 4월 22일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吳然天총장, 趙天植동문과 부인 윤창기 여사를 비롯해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중앙도서관 朴枝香



윤창기 여사(趙동문 부인), 趙天植동문, 吳然天총장

‘조전식·윤창기 중앙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趙동문은 “최근 동창회보를 통해 모교가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학문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학문 성장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KAIST에 1백55억원을 기부해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趙동문은 2011년에는 전주교대전교구에 20억원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趙동문은 한국은행 이사, 은행감독원 부원장, 태화방직 사장, 한국정보통신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보통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故 백형익 선생의 부인

희망장학금 5억원 추가 총 10억원 기부

故 백형익 선생의 부인 유근순 여사(사진右)가 모교에 희망장학금으로 5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지난 3월 27일 吳然天총장과 유근순 여사를 비롯해 생활과학대학 余禎星학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尹鐸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기금을 ‘백형익·유근순 희망장학금’으로 지

정했다.

이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성취가 우수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영대학 경영학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자동차학부 학생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故 백형익 선생은 평안북도 북진 금융조합에서 근무하고,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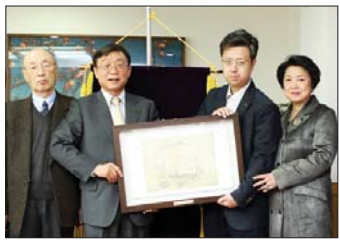


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8년 8월 모교에 ‘백형익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高靈申氏 종손 신상훈 씨
선조 초상화 3점 기증

高靈申氏 省齋公派 종손이 모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초상화 3점을 기증했다.

모교는 지난 4월 12일 총장실에서 吳然天총장과 高靈申氏 종손 신상훈 씨 부부를 비롯해 邊昌九교육부총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모교 독어독문학과 申泰浩명예교수, 吳然天총장, 신상훈 씨, 김광지 씨(신상훈 씨 부인)

金仁杰원장, 발전기금 李昌雨부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작품은 조선초 유명한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申叔舟의 후손인 申用漑, 申應渠, 申翼相의 초상화들이다.

이 초상화들은 궁중 화원들의 솜씨로 제작된 조선 후기 초상화 기법의 변천 등을 살필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美)

재학생의 소리

미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



柳仁聖

(화학12입)

미술동아리 ‘몽환’ 회장

미술동아리 ‘몽환’은 중앙동아리 취미교양분과 소속으로 2001년 창단해서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미술동아리로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술동아리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각종 미술공연을 보러 다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미술을 배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배들은 미술을 가르쳐주고 후배들은 배우면서 선후배간에 두터운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미술을 배우는 lecture가 있고, 날씨 좋은 봄에 벚꽃길에 놀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동안 배운 미술을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범소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년 2회씩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멋진 미술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전체의 실력 향상을 위해 동아리 내에서 신입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미술대회도 열고 있어 회원들이 관람객에서 아마추어 미술사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각종 MT와 매년 여름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을 관람하러 동아리원들끼리 4박 5일간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동아리

원들 간의 친목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술을 배우고 하면서 느는 것은 손재주뿐만이 아닙니다. 미술은 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다보면 낮은 사람과도 어색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술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술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 만큼 동아리에서 재밌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저만의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몽환’의 매력입니다.

대표이사 김혜정 [82入 독어독문]

좋은사람만다
결혼해 듀오

[성혼회원수 26,670명 | 점유율 63.2%, 매출 1위]
(2013년 4월 22일 기준)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3.4.22)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연방'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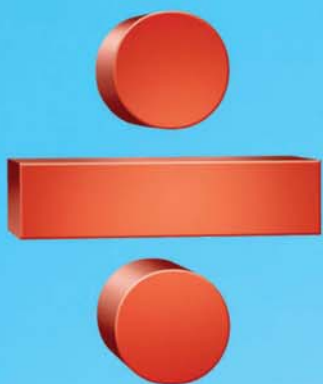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주택사업자의 부담은 나누고



주택사업자의 성공은 더하고



주택건설경기가 불황인 요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하기 힘들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도와준 덕분에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사업할 맛이 납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있어 주택사업이 든든합니다.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 파트너
대한주택보증이 함께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아파트 분양대금의 5%이상을 납부한 계약자가
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

정비사업대출 및 리모델링자금보증

조합(원)의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을
조달할 때 이용

주택사업금융(PF)보증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믿을 수 있는 성공 파트너,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더 큰 꿈을 이루세요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
분양계약자, 오피스텔 임차인

· 원활한 주거비 조달
·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비용 절감

주택사업자

· 원활한 사업추진
· 연대보증 부담 해소

금융기관

· 대출자산 건전성 강화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분양 계약 및 분양금 납부시 유의 하십시오
- 허위계약(명의대여), 대물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 기타 면책 내용은 분양계약서 및 홈페이지(www.khgc.co.kr)를 참고하세요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
대한주택보증

콩트 릴레이

내 눈을 돌려다오

姜 信 盛(영문55 - 60)

前駐칠레 대사, 소설가



나는 안과 의사다. 비교적 잘 나가는 의사다. 하루에 1백여 명의 환자를 본다. 그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 중에는 좀 엉뚱한 환자도 있다. 눈병 치료를 의학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삶의 의미와 연관지어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김 씨다. 김 씨는 3개월 전 처음 대할 때부터 내 흥미를 끌었다. 좀 마르긴 했어도 수려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눈이 특별했다. 움푹 들어간 눈이 창백한 얼굴에서 검박일 때를 보면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저런 눈을 하고 땅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내 의심이 터무니없는

빨리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눈을 다시 세밀히 검사했다.

“현재 상태로 봐서 수술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군요. 당분간 안약을 써가며 기다려보지요.”

“아닙니다. 서둘러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완강했다.

“왜 그렇게 조금하십니까? 지금 심히 불편하세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앞이 흐려진다는 것은 세상이 흐려진다는 것이고, 세상이 흐려진다는 것은 내가 흐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

전적으로 나왔다. 안색이 거칠고 어두웠다.

“선생님 내 눈 말입니다. 수술 잘 된 것입니까?”

“잘 됐지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될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 그건 세상을 더 밝게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좋은 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괴로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니까요.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에 의지해서 존재해 왔던 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자기를 잃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사정했다.

“선생님 내 눈을 수술 전의 눈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아름다움의 정체가 뭡이요?”

“그럼, 제 말이 장황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면 원래의 제 눈을 되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

얼굴에 웬 주름살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이마에, 눈가에, 인중에 시간이 낸 흠집이 많이 나있는 것이 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비단 같이 포근하고 매끈하던 얼굴 바탕이 지금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흐린 벽지처럼 보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분의 생일을 조사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15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서너 살 위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차가 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연령차가 왜 지금은 보이는 것입니까? 눈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수술한 눈으로 보면 이전의 그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아시죠. 그러니 선생님, 제발 제 눈을 옛 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분의 옛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 즉 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면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은 보는 눈이 다름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상을 환영이라고 하면서 상을 상으로 보지 않아야 여래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불교경전인 금강경의 한 대목을 인용해 내 말에 신빙성을 주고자 했다. 그래야 그가 내 말을 믿고 복원 어쩌고 하는 것을 접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자 그는 희한한 이론을 제시했다.

“상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상과 보는 눈을 고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눈을 이전의 눈으로 복원해서 고정시키면 그분의 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도 영원한 실체로 고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을 복원해 주십시오.”

“질병을 복원한다는 것은 의사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걸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없이 떠났다. 발이 휘청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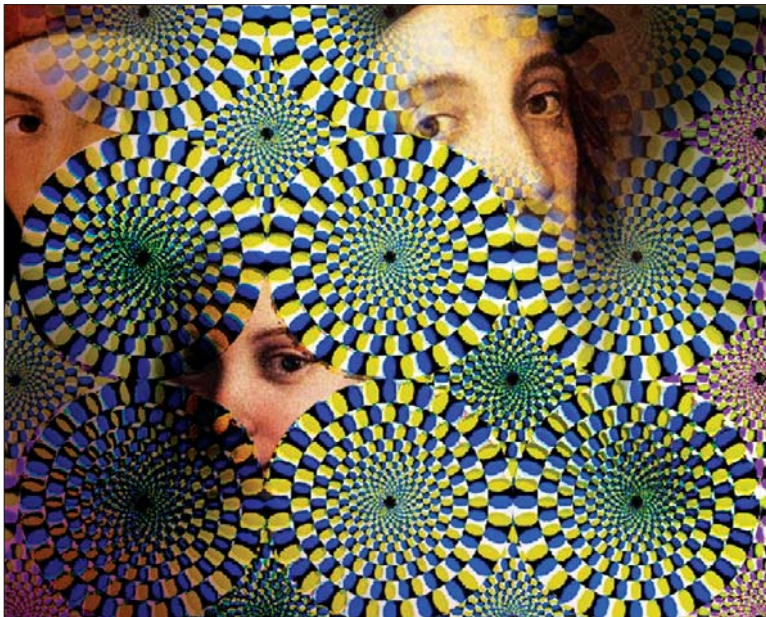
나는 그것으로 김 씨와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가 나타났다. 나는 속으로 찔끔했다. 또 복원수술을 해달라고 때를 쓰면 어쩌나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오산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끊었던 안약을 탈 겸 선생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뜬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전과 달리 화기까지 차 있었다.

“전번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비록 내 눈을 고정시킨다 해도 눈에 보이는 상은 고정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그걸 허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 같이 절망하는 인간을 위해 자기의 젊고 아름다운 상을 영원히 고정시켜서 보여줄 고매한 분신을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그분의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재생과도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의 그런 재회를 인도한 것은 육안은 가망찮고 여래를 볼 수 있는 심안이었습니다. 그 심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처방전을 들고 떠났다. 이번에는 자세가 반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다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독송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 - 07)

“

전에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괴로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니까요.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에 의지해서 존재해 왔던

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

것이 아님이 곧 확인됐다. 진찰을 마치고 그의 눈이 백내장을 앓고 있으며, 그 질병은 노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려주자 그는 얼굴색을 짙 바 꾸면서, “저는 아직 오십대 초반인데 노안은 무슨 노안입니까?” 하고 불멘소리를 했다. 인체는 오십이 넘으면 노화한다. 그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어이없어하는 나를 본 그는 한 발 물러났다.

“내게 백내장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요. 우선 백내장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포소도라는 안약을 드릴 것입니다. 그걸 써보고도 낫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시무룩하니 약 처방전을 들고 돌아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나가는 그의 등을 향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염주를 굴렸다. 나는 불교를 조금 공부한 인연으로 염주를 애용한다. 염주를 손에서 돌리면 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가라앉기 때문이다. 심신을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필수적이다.

1개월 쯤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눈 수술을 해야했습니다.

는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도 진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농치는 기분으로 한마디 했다.

“그 대신 눈앞의 추한 것을 보지 않아도 되니 좋은 것 아닙니까? 허하...”

“아닙니다. 추한 것을 안 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내가 사모하는 아름다움마저 못 볼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모까지 하는 아름다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는 내 말을 컷등으로 듣고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다. 그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앞당겨 수술을 해주었다.

그 후로 그는 수술의 예후를 감진받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이제는 돌보기 없이 책을 볼 수 있다고 좋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수술을 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도 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흐려진 수정체를 깎아내고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갈아 넣는 것이다. 요즘 인공수정체는 질이 좋아 그걸 끼면 마치 눈에 망원경을 낀 것처럼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정도로 시력이 확대된다.

수술을 받고 좋아하던 그가 한 번은 와서 도

은 제가 사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음과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사실 저는 제 구원의 여인을 찾아 평생을 편력했습니다. 편력이란 말 오해 마십시오. 그저 짝사랑 행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평생의 편력을 마감시키는 종착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 세상에는 눈 하나 팔지 않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끔 만나 문학 이야기나 하고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굴지의 문학상을 탄 작품을 여러 편 썼습니다. 저도 소설가로 행세는 합니다만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내 연인이자 문학의 사표이기도 합니다. 연인이라는 말은 내가 쓰는 용어이지 그분이 들으면 웃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 내 방황하던 영혼은 평상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헤어지길라도 했소?”

“그게 아니라 눈 수술이 문제입니다. 그분은 제게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보니 그분 역시 시간의 존재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고 곱게 보이던

방배결혼은 오직 하나!

세계가 주목하는 Leadership of Korea

“대한민국 희망인물”

결혼의 달인 중매대통령 차일호 중매의 신화3600쌍 성혼

KBS 4월29일 **아침마당** 출연

tvN **함성인 바이러스**
200회 다시보고싶은사람 출연

JTBC **김국진의 박치기**
현장 박치기

아리랑TV **코리아투데이**

TV조선 **행복결혼위원회**

MBC **월화수목** 중매대통령 출연

5월 **우먼센스** 472 기사 ~473 참조

ROTC장교 임관 73월기 부대장 예편
국내 최고재벌 회장 및 언론사 사주
대통령 비서실장, 재단이사장, 병원장
미스코리아, 2000억대 무남독녀 및
VIP500여쌍 등 모두 약3,600쌍 중매

맞선 세 번, **작** 찾는다!!

대한민국 최고 결혼 정보회사로 TV 88회 출연
세상에서 중매 최고, 뉴욕타임즈 대서특필 소개
법조인, 의사, 공무원, 회사원, 교사, 약사, 유학생



화성인바이러스 출연 26회에서 '폭탄선언'

차일호 회장은 tvN(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결혼은 조건과전략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며 “바보온달이나 신데렐라처럼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은 현실에선 없다”고 했다.

MBN-TV ‘보물섬 전설의 큐피트’ 출연



중매박사 척 보면 압니다

군복무시육군참모총장아들 중매를 계기로 군에서 20여쌍 중매를 성사시켜서 ‘중매대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스님 아버지에게 배운 관상을 접목해 중매기술을 익혀 성혼률이 높다. 차회장은 “사진만 봐도 두사람이 어울리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중매를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 혼율이 아주 적습니다.”

차일호 교수 TV에 88회 출연

차일호 회장의 명성은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고, “KBS자니윤쇼”, “아침마당”, “아침을 달린다”, “SBS 세븐데이즈”, “행복찾기”, “결혼만들기”, MBC “임성훈의 좋은 아침” 등 TV에 88회 출연하여 방송과 신문에 한국 최고결혼정보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차교수는 방배동에서 26년동안 방배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고 H대학 교수로 4년 전까지 재직하다가 퇴임을 하고 현재는 명예 교수로 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SBS **생활의 달인** 314회 출연



아주 별난 중매도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집 아들이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군대가기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닮은 백화점 여종업원 중매를 부탁하여 결혼시킨 사례도 있다.”

이혼 증가 재혼 급증

지금은 1년 이내에 이혼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인격과 건강, 삶에 대한 성실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 “재혼은 초혼과 다릅니다. 돈을 보고 재혼을 하면 결혼 후 돈 때문에 다시 헤어집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과 재혼해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환상을 없애야 제2의 실패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재혼은 부인 이영희 원장이 한다.

인터넷 **방배결혼** 검색

싱글 **꼭** 보세요

MBN-TV **보물섬**

KBS자니윤쇼 출연 한국에서 중매 최고

차일호교수가 자니윤쇼에서 우리나라에서 중매를 제일 잘한다고 소개되어 입소문을 들은 고객들이 앞다투어 중매를 신청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주위 사람들을 소개해주었다. 성급히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중매를 하기 때문에 유명하다.



사비 털어 베트남 한인2세 결혼중매

차일호 교수는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불쌍한 베트남 한인2세36쌍 합동 결혼식 모든 비용을 자기아파트를 팔아서 결혼시켰다.

방배결혼정보회사

중매박사 차일호 교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제21-12028926호

(02) 582-600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200호 서초No : 080020

민족의 슬기와 공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
신풍제약주식회사
<http://www.shinpoong.co.kr>

프랑스 국영기업인 LFB사와
 한국내에 바이오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
 (Strategic Alliance Agreement)
 체결식. ▼

▲ 국산신약 16호와
 유럽약정국(EMA)로
 부터 신약허가를 받은
 항말라리아제 치료제
 '피라맥스정'

▲ 한국화학연구원과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조인식 및
 MOU 체결식.

LFB & SHIN POONG Strategic Alliance Agreement

25 March, 2013 SHIN POONG PHARM CO., LTD.

“민족의 슬기와 공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50년을 한 길로 걸어온 Global care 신풍제약

신풍제약 글로벌 신약 차세대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정(국산신약 16호) 개발성공

인류 생명존중의 정신과 질병 퇴치라는 숭고한 인류애로 신풍제약은 WHO와 빌게이츠 투자재단인(MMV) 지원으로 세계적인 연구프로젝트인 항말라리아제 신약개발에 성공함으로써, 2011년 8월 17일 한국식약청(KFDA)으로 부터 국산신약 16호로 승인 받았으며,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2012년 2월 17일 유럽약정국(EMA)로 부터 신약 허가를 취득하게 되어 신풍제약의 신약개발에 대한 능력을 국내외에 널리 입증 하였습니다.

신풍제약 LFB사와 포괄적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신풍제약은 프랑스 국영기업인 LFB Biotechnologies사(LFB)와 한국 내에 바이오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 (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을 2013년 3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LFB-신풍제약 간의 투자유치 MOU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었고, 방한 중인 한국계 프랑스인인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 · 혁신 · 디지털경제 장관)은 프랑스 국영기업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 직접 체결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십니다.

신풍제약 세계 최초의 신개념 골다공증치료제 개발

신풍제약은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011 프론티어 연구성과대전' 에서 새로운 개념 (골형성은 촉진하고 골흡수는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타즈" 단백질을 조절하는 골다공증치료제 후보물질(KR-35454)) 의 세계 최초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조인식 및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전임상, 임상시험 등 상품화를 위한 개발을 거쳐 2018년까지 이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 EU-GMP 공장



한국 KGMP 공장



오송 세파계 공장



중국 천진 신풍제약



베트남 신풍제약



수단 신풍제약



2천만불
수출의 탑

동 정

수 상

▲盧健一(정치60-64 한림대 총장)=지난 4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정주인재교육 부문) 수상.

▲陳政一(화학60-64 고려대 융합대학원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수훈.

▲朴容昶(의학62-68 한국산업기술평화위원회 부회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수훈.

▲吳明(전자공학64-66 동부그룹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26일 육군사관학교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수상.

▲鄭喜成(국문64-68 시인)=지난 5월 11일 충북 옥천군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5회 鄭芝溶문학상 수상.

▲全義進(공업교육65-6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범사업추진단장)

=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權寧珉(국문71졸 단국대 석좌교수)=지난 4월 26일 于湖申鉉鎬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5회 우호인문학상 수상.

▲金慶烈(화학67-71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난 5월 10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수당상(기초과학 부문) 수상.

▲金承祚(항공공학69-7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수훈.

▲李龍泰(공업교육70-74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단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수훈.

▲李廷鎔(재료공학70-74 KAIST 교수)=지난 5월 10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수당상(응용과학 부문) 수상.

▲鄭錫場(공업교육75졸 포스코 회장)=지난 5월 6일 철강기술협회(AIST) 국제학술대회에서 최고의 철강인상 수상.

▲金用民(전자공학71-75 포스텍 총장)=지난 4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연구중심교육 부문) 수상.

▲李揆虎(응용화학71-75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金裕東(독문71-77 경상대 교수)=지난 4월 26일 于湖申鉉鎬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5회 우호인문학상 수상.

▲金熙玉(신대원76졸 동국대 총장)=지난 4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창의교육 부문) 수상.

▲宋熙俊(국사72-76 이화여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황조근정훈장 수훈.

▲吳載鎬(기상72-76 부경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劉啓鉉(기계공학74-78 우진 대표)=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수훈.

▲張正植(공업화학74-78 모교 화학물질공학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수훈.

▲禹卿植(해양75-79 강원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수훈.

▲朴敬燁(전기공학75-79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수훈.

▲李大成(기계공학75-7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혁신기술연구소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李鎬振(전자공학81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金聖薰(경제78-82 서강대 교수)=지난 4월 1일 제1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金修奉(물리79-83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수훈.

▲朴英娥(물리79-83 명지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수훈.

▲余禎星(가정관리79-83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지난 4월 1일 제1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金己媛(대학원83졸 신라대 교수)=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

기술훈장(진보장) 수훈.
▲李知苑(의학03-07 모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임의)=지난 4월 6~7일 모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소아신장 세미나에서 최우수 발표 연제상인 'Hiroto Prize' 수상.

▲金圭圭(경영전문대학원10-12 대한주택보증 사장)=지난 4월 25일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한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수상식에서 창조경영 부문 대상 수상.

▲李海植(SGS 23기 서울시 강동구청장)=지난 4월 2일 제5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인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상.

▲辛永茂(법학63-67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대 동창회장)=지난 4월 17~20일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4월 17일 임기 2년의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대표공동위원장에 위촉.

▲李銀哲(원자력공학65-69 모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지난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사



kitis 키티스산학연정보사는
우리나라 학술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IEEE IHS 정보 서비스 주관사로서
국가 R&D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EEE IHS Authorized Dealer in KOREA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대)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QLP 21기)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호
 [뉴저지지사] 26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해튼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RN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차관보에 임명.

▲安哲秀(의학80-86 前모교 융합 과학기술대학원장)=지난 4월 24일 서울 노원 병 선거구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李完九(ACAD 30기 前충청남도 도지사)=지난 4월 24일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 행사

▲閔庚甲(회화53-57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오는 5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 대치동 슈페리아 갤러리에서 '감성과 영혼의 세계'를 주제로 전시회 개최.

▲崔翔默(치의학57-61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최근 치과전문 온라인 매체 '덴틴' 장간.

▲尹惠淳(행정59-63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고문)=지난 3월 22일 최근 定齋 朴泰輔선생을 기려 설립한 鸞江書院의 제사년 춘향제에 종현관으로 참석.

▲李吉鍾(조소60-64 춘천교대 명예교수)=지난 5월 3~9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미술관에서 조각작품으로 제7회 개인전 개최.

▲元佑鉉(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5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꿈꾸어야 청춘이다'(누벨 플레) 출판기념회 개최.

▲姜孝(기악63집 세종솔로이스츠 예술감독)=오는 5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2013 서울국제음악제 폐막공연 개최.

▲孫郁(기계공학63-67 前삼성종합기술원장)=지난 4월 15일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코리아닷컴) 출간.

▲鄭東俊(행정65-6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초지회장)=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민회관에서 무료 한자대강좌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지난 4월 26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4월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고교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북한, 통일 문제 이해'를 주제로 특강.

▲李昇鍾(화학공학70-74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지난 4월 17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논문 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 개최.

▲李在然(가정관리70-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지난 4월 10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또 18일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청소년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 주제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全美映(기악74-78 한국교원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5월 4일 서울 학동삼익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裴晶寅(기악86-90) 동문과 함께 듀오연주회 개최.

▲金英基(국악77-81 김영기가곡연구회 대표·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보유자)=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주최로 열리는 제17회 상상축제에서 여창가곡 15곡 완창.

▲徐孝淑(회화81-85 서양화가)=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세종갤러리에서 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제10회 개인전 개최.

▲朴俊永(작곡86-90 경희대 교수·범음악제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지난 5월 7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작곡 발표회 개최.

▲丁皓鎭(기악88-92 한세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30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레거, 모차르트, 비버,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趙眞新(기악89-93 한국산업기술평가 전문연구원·퍼커셔니스트)=지난 5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니스트 李恩延(기악90-94) 동문, 오보이스트 趙允新(기악91-95) 동문, 클라리네스트 김민이(기악00-04)

동문 등과 함께 앙상블 Mi-u 정기연주회 개최.

▲鄭꽃님(성악89-93 단국대 교수·소프라노)=지난 4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모차르트, 슈만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朴昭映(동양화92-96 모교 강사)=지난 3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자연의 거닐다'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金정미(기악95-99 숙명여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4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하이든,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李善哲(의학43-47 前한림대 교수)=4월 28일 별세(89세)
- ▲金韓燮(의학44-51 前김해석산부인과의원장)=4월 22일 별세(88세)
- ▲成樂正(전기공학48-54 前한국전력공사 사장)=4월 8일 별세(86세)
- ▲朴源培(치의학51-55 前박일치과의원장)=4월 22일 별세(82세)
- ▲鄭何漢(화학공학52-56 前희성엔지니어링 대표)=4월 15일 별세(81세)
- ▲金聖又(치의학68-75 김성우치과의원장)=4월 25일 별세(64세)
- ▲金多成(잠사69-73 에이스침대 익산대리점 대표)=4월 19일 별세(66세)
- ▲趙聖禧(의류77졸 前전주대 교수)=3월 7일 별세(58세)
- ▲廉炯杰(의학74-81 한양대 교수)=4월 11일 별세(58세)
- ▲金成浩(AMP 32기 前동아종합개발 사장)=4월 5일 별세(8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2012년 대한민국 최고 250억불 수출의 탑 수상
에너지 수출기업 GS칼텍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행복한 교과서 만들기 48년, 국어 교과서는 역시 "지학사"입니다!!



국어 교과서 집필진 116인,
현장 교사 검토진과 편집진 165인,
디자이너, 사진·컷·삽화가 136인,
조판·제판·인쇄 등 제작 참여 173인,
국어 교과서 수록 글감과 자료 제공 900여 인,
그 외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학사 국어 교과서 8종 32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 부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바친 여러분 덕분에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국어교육을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교과서이기에
더 자랑스럽고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학사는 또다시 많은 분들과 함께
“2014년 적용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국어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
지학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학사 국어 교과서 8종 32책 | 중학교 국어·생활 국어(방민호) 1-1, 1-2, 2-1, 2-2, 3-1, 3-2 / 중학교 국어·생
활 국어(이용남) 1-1, 1-2, 2-1, 2-2, 고등학교 국어(방민호) (상), (하) / 고등학교 국어(박갑수) (상), (하) / 문학(권
영민·방민호) I, II / 문학(최지현) I, II / 독서와 문법(이상형) I, II / 화법과 작문(이상형) I, II

(주)지학사

BBDO Korea
DDB Korea
Dentsu Korea
TBWA Korea

한국에서 잘 통하는
외국 광고회사처럼



해외에서도 잘 통하는
한국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전세계 20여개 거점을 둔 글로벌 컴퍼니 이노션
국내 광고회사 최초 슈퍼볼 광고제작,
한국형 길거리 응원장인 팬파크를 전세계로 수출,
세계최초 아이폰 영화 '파란만장'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세계최초 4D 극장 광고 등으로
세계로부터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에게 가장 한국적인 답을,
글로벌기업에게 가장 글로벌한 답을

INNOCEAN
WORLDWIDE



PACIFIC HOTEL 남산홀 연회 안내

남산홀은 단아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단독 연회장으로 아기 돌잔치!
고회연, 세미나, 동창회 모임 등
“맞춤 연회”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수용 인원 ! 60~130명

! 특전 사항 ! 빔프로젝터 무료 사용
테이블 플라워 & 캔들 데코
3단 축하케익 무료 제공
돌잡이 용품 제공

※ 행사준비 및 편의를 위해 행사시간 동안 단독객실 제공함.

PACIFIC HOTEL

문의 및 예약
02-3782-3366

www.thepacifichotel.co.kr

Otsuka

아무것도 안 바른듯, 외출이 가벼워진다

SPF 50+ PA+++ / 워터프루프 | 스킨처럼 산뜻하다! 우르·오스 플러스 선블럭

UL·OS

판매처 및 자세한 제품 정보는 소비자 상담실 또는 우르·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 080-000-9954 / www.ulos.co.kr]

신 간

■ 여생을 즐기자

— 權彝赫 지음



문교부·보건사회부·환경처 장관, 모교 의대 학장·보건대학 원장·병원장·총장 등을 역임한 又

岡 權彝赫(의학41-47 분회 고문)동문이 여덟 번째 에세이집을 펴냈다.

중학교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썼던 일기장이 6·25전쟁 때 송두리째 없어진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일기 대신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 鄭寅錫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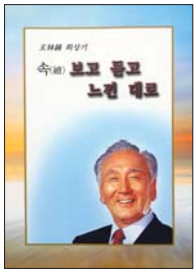
한국트랜스퍼스널학회 鄭寅錫(교육51-55)고문이 동서 예지의 통합과 자기조율의 패러다임을 담은 책.

이 책은 근대적인 개인주의의 한계를 초월해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인생관·세계관·생활양식을 서구심리학과 동양종교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성장은 자아의 확립, 실존의 자각, 자기실현으로 지칭되는 퍼스널리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이웃·공동체·인류·생태계·지구·우주의 일체감과 동일성의 확립, 즉 자기조율의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대왕사刊·값35,000원>

■ 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 玄林鍾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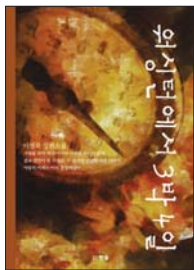
수필가로 활동 중인 현미숙장학회 玄林鍾(상학56-60)회장이 팔순을 맞아 회고록을 펴냈다. 좁게는 자신의 개인사이면서 넓게는 고향인 제주 지역의 풍속 내지 사회사의 한 면을 담고 있다.

80여 편의 신변잡기와 70여 편

의 수필, 60여 편의 유모어 모음 등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편린들, 삶의 애환과 흥터를 그 때 그 기억에 새겨 놓았다. 특히 '제주말(사투리)'에서 보여 주듯이 고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주말의 패러디가 일품이다. <대동출판사刊·값10,000원>

■ 워싱턴에서 3박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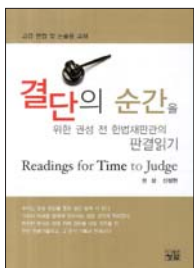
— 李英默 지음



미 주 동창 회장을 지낸 워싱턴문인회 李英默(섬유공학59-63) 상임 고문의 장편소설. 이 책은 모험과 사랑, 그리고 음모와 비극으로 치닫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모국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꿈꾸는 여자. 자신을 놓아버린 듯 살아가던 남자.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소설의 배경은 워싱턴과 한국, 그리고 과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지러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인들이 이국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아프게 그리고 있기도 하다. <한승刊·값12,000원>

■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 權 誠 외 지음



언론중재위원회 權 誠(법학60-66)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문과 결정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 등을 선별해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의 구성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국가적 사안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일반인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정람刊·값24,000원>

■ 영어세대를 위한 주역 해설(상, 하)

— 金榮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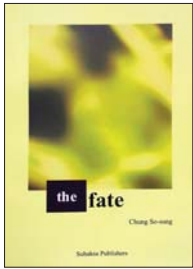
중국 고전에 늘 관심을 기울여 온 金榮一(법학60-6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지도위원)동문이 '영어세대를 위한 주역 해설' 상·하권을 펴냈다.



이 책은 고전을 통해 동양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됐다. 동양의 지혜를 배우고 싶지만 한문이 너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는 대학생,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은 있으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로는 도무지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한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뿐만 아니라 중요 단어까지 주석 수준의 해설을 달아 옥편을 찾지 않고도 원문을 독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출판부刊·각 값38,000원>

■ the fate

— 鄭昭盛 지음



단국대 鄭昭盛(불문64-69 마로니예회장) 명예교수가 사머니즘을 다룬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鄭동문은 수년 전 한국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장편소설 '두 아내'를 프랑스어로 파리에서 출간한 적이 있었지만, 단행본 형태의 영문소설전집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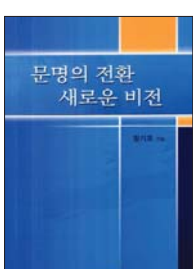
이 책에는 중편 'The island of no return', 'The ship bound for Athens'와 단편 'Lost dusk'와 'Speed'도 함께 실었다.

재미 번역가 John Cha와 가톨릭대 영어영문학과 이보경 前교수가 번역을 도왔다. <소학사刊·값25,000원>

■ 문명의 전환

새로운 비전

— 張琪杓 지음



모두가 살기 힘들고 불안한 오늘날, 행복하기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신문명정책연구원 張琪杓(사법66-95)대표가 나름의 의견을 정리한 책.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신문명정치가 이뤄지기 위해 어떤 이념과 정책 및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국가운영과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지 등을 안내한다. <백산서당刊·값18,000원>

공연

■ BIN Trio 정기연주회

— 5월 19일 예술의 전당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16회 BIN Trio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영남대 陳圭英(작곡67-71)교수의 '한국의 정경'을 비롯해 브람스,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소노리테 목관5중주

— 5월 25일 예술의 전당



플루티스트 장선우(기악94-98) 동문(사진上), 오보이스트 조경은(기악94-98)동문(사진下)등이 5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7회 소노리테(Sonorite)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차이코프스키, 포레, 프 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

■ 경제 모형과 방법론

— 黃壽淵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79)교수가 저명한 공공선택학자이자 오스트리아학과 이론가인

랜들 G. 홉스의 책을 번역했다.

이 책은 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이 모든 경제학의 공통 기반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 무시 가능성 가정·영역 가정·발견적 가정과 같은 가정들의 역할, 모형과 이론의 관계, 경제학에서 귀납과 연역의 역할, 실증주의와 다원주의의 대립, 신고전학과 모형과 오스트리아학과 모형의 차이, 경제학적 제국주의 등을 다뤘다. 또 방법론에 대한 권고로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 9631>

■ 李연주 오보에 독주회

— 6월 1일 예술의 전당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 중인 오보이스트 李연주(기악99-03) 동문(사진)이 6월 1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李동문은 이날 비발디, 스키타스, 파스칼리 등의 작품으로 관객과 호흡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전시

■ 安相喆 20주기 회고전

— 6월 2일까지 안상철미술관

서라벌예대와 성신여대 교수를 지낸 然靜 安相喆(회화50-53)동문의 20주기 회고전이 지난 4월 2일부터 열리고 있다.

오는 6월 2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안상철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수묵화를 중심으로 한 초기작부터 후기의 오브제 작업인 靈시리즈까지 총 36점이 전시된다.

故 安相喆동문의 부인은 여류화가 晶月 羅惠錫선생의 조카인 羅喜均(회화50-54)동문. 아들은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安祐成(건축85-89)소장. <전시문의: 안상철미술관 031-874-0734>

를 옹호한다. <리버티刊·값20,000원>

■ 행복한 마음

— 이병욱 지음



서울 논현동 대의의원 이병욱(ASP10기)원장의 행복론.

일상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성공에 대한 개념과 목표, 가치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행복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 가치 있는 행복, 소중한 행복, 사랑이 있는 행복을 추구할 것을 바라고 있다. <두란노刊·값12,000원>



OPEN MY 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곳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blog.samsung.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3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2. 7~3. 29) · 일반 (2013. 2. 5~3. 29)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世榮=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곽상엽 AMP34
△권영익 AIP19 △권택을 FIP7
△김능수 AMP70 △김동연 법대92
△김신원 공대64 △김영국 사대69
△김원호 문리66 △김중성 법대81
△박경배 공대67 △박영식 AIP28
△박천표 HPM11 △서황욱 사회91
△신정화 음대87 △유재천 문리57
△은수미 사회82 △이경훈 行院76
△이병래 농대82 △임범식 GLP19
△장병완 상대71 △장소원 인문80
△전익성 공대86 △정원영 AMP63
△정철수 사대68 △최정환 ACAD69
△최주석 농대67

(일반) △강승천 AIP46
△강은수 인문05 △강은영 생활84
△강호중 공대67 △고 석 법대85
△고지훈 사회01 △구명진 생활05
△권상문 ACAD45 △권태걸 농대57
△김병로 의대83 △김병철 공대74
△김성현 자연93 △김용구 大院80
△김종식 법대68 △김태현 인문85
△김필광 자연05 △김학자 법대85
△김흥국 경영72 △문대홍 AIP46
△문병권 자연89 △박병록 AIP47
△박상문 ASP21 △박상진 AFP9
△박영기 ABP25 △박윤규 법대72

△박종흠 사회76 △박종민 공대83
△박현애 간호76 △박혜숙 ACAD74
△박희영 사대75 △서대철 의대75
△서종혁 농대66 △석동현 법대79
△성창용 HPM28 △손영국 ASP6
△손원준 경영96 △송오섭 공대74
△송인상 공대00 △송인정 음대95
△송재학 공대05 △신동로 사대66
△신정철 行院89 △심진보 공대02
△안규철 GLP24 △안동수 법대59
△안소민 공대02 △엄혜원 國院05
△오경해 생활79 △오형근 AMP48
△유석원 國院03 △유성재 GLP25
△유희영 미대58 △윤보환 GLP25
△이동준 자연02 △이동한 사회77
△이동훈 공대99 △이민호 법대90
△이병호 공대83 △이상식 GLP17
△이석구 법대88 △이선아 음대00
△이성태 약대60 △이성희 의대86
△이수연 음대07 △이승화 AFB11
△이영재 IFP7 △이은방 상대57
△이인영 공대68 △이지성 공대02
△이지혜 생활01 △이진복 AMP12
△이태민 의대08 △이해광 사대78
△장상현 行院70 △전영조 경영91
△전희준 AFB12 △정의상 사대55
△정태오 AMP12 △조강래 ALP16
△조규장 미대79 △조기운 자연03
△조도희 공대05 △조미영 HPM28
△조영길 법대84 △조창식 AMP47
△조창호 ALP15 △진동백 공대03
△천유진 保院03 △최영수 AMP46
△최원우 문리65 △최준용 의대91
△최진갑 법대72 △한원석 HPM28
△한중수 사대76 △현승일 문리61
△홍성민 공대04 △황윤희 음대79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김대환84
△김덕출81 △김동철78 △박명식77
△박종덕74 △신원식73 △오세중79
△유기훈77 △윤상익81 △윤호중81
△정재문72 △진재기83 △최태영76
△홍성윤73

◆사회대 △권민용86 △김대희81
△김동선76 △김동섭81 △김용호75
△박경재74 △서동영79 △손광락74
△신봉길74 △신철식73 △유성열80
△유천일76 △이창구73 △이흥엽91
△정석구77 △조태형88 △주순식73
△지동하84 △한병송85 △홍벽교78

◆자연대 △김관식84 △김규중72
△김현식91 △백병락72 △서재영83
△엄원근77 △이창복86 △조재린90
◆간호대 △이윤경65 △조동란66
△홍정희86

◆경영대 △구자일86 △김명관82
△김석호77 △김용철83 △김홍섭79
△유태우79 △장영철76 △홍석주72
△황수연72

◆공대 △강남식73 △강달영87
△강상균90 △강순욱53 △강희태58
△고 찬99 △곽삼영51 △권명욱76
△김경배68 △김경화65 △김노수45
△김덕우81 △김성언71 △김원배55
△김원수61 △김인상67 △김제영71
△김종욱61 △김종익59 △김주홍47
△김진근71 △문석형50 △문창환75
△민경식50 △민병선55 △박상언71
△박영길78 △박재기52 △박찬민57
△박찬빈60 △박창순64 △박태권55

△박현철85 △박홍준71 △박황호65
△박흥철51 △백승욱58 △백형배47
△변영삼77 △변창훈70 △서광벽73
△서문호68 △선석문68 △설영화65
△신훈철47 △심한배71 △안상형69
△안재휴52 △오창석69 △원정수53
△유승빈63 △유승준63 △윤경원92
△이경환83 △이계수63 △이창호54
△이상준76 △이상호81 △이석준83
△이세열78 △이원표72 △이인원69
△이재홍72 △이종남73 △이주선64
△이중성61 △이진우80 △이창호55
△이환범56 △임기석63 △전효택67
△정한모71 △조대승81 △조덕상66
△조영진76 △지 순54 △최정욱49
△최효범77 △허준환51 △현정훈76
△현희현59 △황이선62

◆농대 △곽지상52 △권재홍83
△김근영65 △김남현74 △김동태62
△김상국51 △김시홍69 △김영섭65
△김정묵59 △김종대72 △김훈동63
△리신호74 △목세균63 △문동준70
△민경택88 △박수철82 △박종주66
△배정길61 △서승덕55 △송한용83
△신동현86 △신용석61 △염익환78
△유병서59 △윤종철83 △윤희진63
△이계홍56 △이병일57 △이봉영76
△이상용61 △이영호65 △이원규58
△이원덕80 △이윤호68 △이재진65
△이학재83 △이희석57 △임장희89
△정봉진73 △정수봉60 △정진구65
△정창주53 △조선종84 △조영래82
△차성윤57 △최찬식56 △허정화72
△홍형홍62

◆문리대 △강신형49 △권병두65
△권오득63 △김동선57 △김상복57

△김종진58 △김춘석69 △류종탁56
△박석흥63 △박영원69 △방석기62
△신정용61 △안승원68 △안취준61
△오영일61 △유덕상68 △이근수71
△이병형67 △이영래60 △이원영69
△이재형65 △이정길59 △인태오57
△임병석54 △장정환56 △정 광62
△정구훈65 △정낙찬69 △조창화57
△전상덕71 △최정도62 △한우석50
△호문익61 △홍두표55 △황병선64
◆미대 △김 태51 △민철홍54
△전민숙74 △천진희76

◆법대 △강상진87 △강재철77
△곽노준74 △김 훈85 △김동원52
△김동호56 △김두희58 △김선욱63
△김영일60 △김영재57 △김영태84
△김유동86 △김의환81 △김이수72
△김재덕73 △김종률81 △김창복51
△김태현46 △김현산54 △김형선57
△나정욱59 △노신영50 △노창동82
△류기훈58 △문영길55 △민병국57
△민수광60 △민수명60 △박경보70
△박국수67 △박국수67 △박동섭60
△박상기56 △박성기71 △박순백66
△박영렬75 △박영현69 △박요찬81
△박창현73 △박형남78 △배용재74
△서돈양56 △서상수80 △서상희68
△성백현78 △성지용82 △성쾌문60
△송기영69 △송병대67 △송언종56
△송진훈59 △신기남70 △안영도65
△안종윤51 △안종택73 △양희영52
△오시열75 △우의형66 △유남석76
△유병환77 △유영상81 △유정호62
△윤덕순59 △윤동운57 △윤보목66
△윤영철56 △윤일영52 △윤장석89
△이백규83 △이병석54 △이상주82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은 한가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2012년 재학생 1인당 지원금 전국 1위
(2008~2012, 재학생 1만명 이상 사립대)

교육과학기술부 취업률 평가 8년 연속 최우수대학
(2004~2011, 졸업생 2천~3천명 그룹)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백악환 박사
설립자·이사장· 명예총장

김해캠퍼스: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부산백병원 내)




△이상환78 △이성호76 △이순기03
△이승철81 △이외수63 △이우근67
△이원규75 △이원호61 △이인표54
△이재창56 △이재철70 △이정락58
△이종삼54 △이종주85 △임 경78
△장세두59 △장준철67 △전응진49
△정세용74 △정용인60 △정하상50
△조성삼81 △조장혁90 △조중환65
△주진학54 △지관엽75 △최병덕72
△최상엽56 △최상원82 △최신석59
△최연희64 △최완주77 △최종길83
△한덕수55 △한부환66 △한이봉83
△홍경용49 △홍성무73 △황병인54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국해웅63 △김성대59
△김영삼73 △김영애64 △김용균65
△노갑기66 △박세원70 △박익두64
△박종달49 △박종현70 △박찬구56
△박화엽64 △백승권53 △변재익61
△송동수67 △신동철59 △신하영58
△안승룡75 △안창섭61 △왕문용66
△유희임68 △윤덕중64 △윤웅섭61
△이광범92 △이원강57 △이창득71
△이환기81 △장정현78 △전성택54
△전용근73 △정상윤74 △정선영63
△정용길77 △최기숙65 △최돈형68
△하상기74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강인식65
△고두모57 △구선화56 △김기중57
△김상희66 △김원길61 △김종호54
△김중기54 △김태두50 △나길웅61

△남상덕69 △남정우60 △노인환54
△문운용60 △문철환56 △박 간68
△박영조61 △백창기61 △손상모53
△손희균46 △송국현56 △신명호46
△오강욱56 △이계안71 △이국희56
△이상근53 △이용성56 △이재규65
△이준용56 △임종두61 △장덕신71
△정병호53 △정주호65 △조창제57
△표계영58 △한병무59 △홍영극60
△홍용찬64 △황동규63
◆생활대 △정현희72 △최영선71
◆수의대 △김계방61 △김상돈44
△김성수64 △김용팔75 △김택수55
△김휘석72 △백오섭58 △이강남66
△이상인82 △장치훈70 △최윤주00
◆약대 △김광순59 △김영택61
△김장호65 △노동철78 △박승규59
△배영일60 △신화영50 △심규장70
△안병욱68 △오응준58 △윤도중58
△윤용찬68 △임상웅60 △장석윤79
△조정식62 △조중현68 △차기현59
△최규팔70 △한규흥64
◆음대 △김미경69 △박정욱78
△신상호74 △심선화72 △이경숙50
△이방실92 △이영심78 △이창수67
△이혜정81 △장재흥57 △최승용78
◆의대 △강대희81 △강일태74
△강재훈88 △고광철79 △고광일64
△김근식53 △김광희55 △김동수83
△김명석62 △김병전66 △김재윤79
△김종숙77 △김창석85 △김현우64

△동영송49 △문성무60 △박경환71
△박세용76 △선우대환71 △손봉기73
△심영보55 △오경균67 △유왕성75
△윤광선68 △이강진74 △이관희75
△이봉화75 △이순형56 △이의용72
△이종석79 △정영덕70 △정을삼60
△정필현82 △주영수84 △추광철60
△하재인44 △홍기정81
◆치대 △강효식57 △김능세70
△김성용58 △김윤영58 △김지호59
△김진홍78 △김태의60 △김현제87
△김현태76 △김홍석57 △나병선69
△남용욱51 △박세운86 △박연천72
△백성기71 △백승동78 △부삼환58
△손영경86 △송영호57 △신덕재68
△이석근90 △이영대70 △이용오56
△이종오76 △이진결77 △이진근63
△이창우75 △임성수60 △임순모70
△임중수81 △임중호82 △정관서79
△조경석79 △최성근65 △허준구66
◆대학원 △김석웅81 △박복만66
△박종열71 △배명진83 △신호수85
△윤경섭89 △윤용훈97 △이시운81
△장승재83 △최원희81 △최인수85
◆보대원 △박순영63 △박원길65
△박준안72 △박희서77 △조경중68
△최치원97
◆신대원 △황영일70
◆행대원 △김덕중82 △김장실79
△배문환63 △장성호85 △장준규65
△정여철74

◆현대원 △박경자76 △박상락84
△박유정90 △석영철71 △이평재73
△황학래74
◆AMP △고시목8 △권용관58
△김봉규20 △김영환34 △남기욱32
△노연웅48 △노태식64 △민명술42
△박달용4 △서종덕12 △성영창26
△손병준68 △송언기28 △오희택1
△우재영7 △유시수25 △유재열35
△유한섭23 △이경태31 △이순구63
△이재민63 △이한규23 △이현구52
△이호수35 △전현찬44 △조문규51
△전용택31
◆AIP △권영렬19 △김동하29
△김성환43 △김승겸16 △김운종31
△김학규26 △문일권39 △박장식27
△심영복38 △유명호43 △윤백중4
△이석준27 △이의현20 △이창규11
△전재홍43 △황이남22
◆ACAD △권태석60 △김광수68
△김광철47 △김연수16 △김용기64
△김종식60 △김창식45 △김태환38
△방동식27 △서정만18 △신동만11
△이달화24 △이상호71 △이종간55
△전영배5 △정동우6 △조홍규26
△진강현20 △최수근51
◆ABP △김성일15 △김수동32
△이계용2
◆SGS △고병준22 △김광두3
△김봉규25 △김종호4 △손창민24
△이창근1 △정해수15 △황중현18
◆APC △장신현3
◆HPM △권오성23 △김중근16
△손규호11 △안호원6 △양동근12
△염신희14 △오국진5 △이철희4
△이태수6 △정호용8 △조정식23
△한훈섭10
◆AMPP △강철환10 △이은세9
◆AIC △김영배2 △이강록13
△이인기11 △장낙진13
◆AFB △김규태1 △이영두9
◆AMPFRI △강동원27 △김병문17
△이태갑14
◆ACPMP △민평기4 △이근성1
△정일주1
◆GLP △권덕수15 △김중대20
△김형중17 △노윤호12 △박세연20
△신용식17 △윤경상22 △임재묵9
△전진규16 △정용기14
◆ALP △김기식5 △백종각12
△윤태석9
◆SPARC △류성택16 △박노현15
△석종호19 △최홍영11
◆AFP △정일채8 △조원국5
◆ASP △박도규14
◆IFP △김용배2

△권태훈87 △김 열70 △김강이07
△김민관97 △김병규05 △김슬기06
△김승기69 △김연광80 △김연진85
△김은혜08 △김의중97 △김재형97
△김현균03 △김효진07 △김홍수85
△나규철84 △노광일77 △박상훈87
△박정호83 △박주태85 △방동욱00
△배종하75 △서영준69 △서정하74
△손건수83 △오경수00 △오문석81
△오세인07 △윤선기83 △윤지영07
△이수현91 △이창수85 △장홍근81
△전주현90 △정우진95 △정주성03
△정현민81 △제민호82 △조현제86
△조진진85 △최진유06 △한지환82
◆자연대 △강경관70 △권혁준06
△김광준81 △김기표00 △김두현90
△김영찬06 △김우래94 △김운오85
△김태윤05 △김훈민01 △노정현04
△박대열68 △박용호00 △박태근08
△박태욱95 △박혜령00 △손승민08
△양희웅92 △엄상영77 △원유덕81
△이 식85 △이길영00 △이동영01
△이병일94 △이선주03 △이슬기전04
△이은진08 △임완중87 △임태순79
△장종만72 △전성준81 △전희진02
△정병철81 △조영길74 △조현진01
△최인호08 △하 룬07
◆간호대 △김다영07 △김시정95
△김혜경88 △신혜경68 △육효순79
△이창우55 △정현명88 △조익준04
◆경영대 △강민선83 △강왕수84
△고광호85 △고희라99 △김기준03
△김성민00 △김성민02 △김영모79
△박주선86 △방한솔00 △서동규84
△서학수82 △안대훈04 △오진환77
△윤병은72 △이용석85 △이철주81
△임정오68 △장인출85 △정광현04
△조진형05 △최지윤07 △허두석93
◆공대 △강신구53 △강영식68
△강영택63 △강용규52 △강환구75
△고중명47 △공순호00 △공철규57
△곽삼진52 △곽희로61 △구형모79
△권경준95 △권기동63 △권기정67
△권순학64 △권영하64 △권오석60
△김경민02 △김경준03 △김계천53
△김광은63 △김규남47 △김대웅52
△김명준03 △김민규74 △김생빈54
△김세준83 △김순영95 △김양후05
△김언기05 △김영문56 △김영찬07
△김용백61 △김용익50 △김용태53
△김인석55 △김인용74 △김재경97
△김정선81 △김정우56 △김정인94
△김정철55 △김정혁00 △김정훈03
△김주민91 △김주하01 △김준용02
△김지수76 △김채식54 △김철호72
△김춘현88 △김현국90 △김현동06
△김현준85 △김혜수64 △김홍근76
△김홍만89 △남기현03 △노소영80
△노승규82 △노충래82 △노환영56
△마영민06 △문동민57 △민영빈01
△박경수76 △박경호73 △박동재51
△박두근53 △박명준53 △박민서79
△박범우06 △박범우06 △박상진69
△박석현67 △박성현97 △박승균63
△박영순54 △박영호70 △박용승54
△박종인97 △박지민93 △박철립59
△박희천07 △방정섭62 △배성환02
△백선욱62 △백학기52 △백효석62
△서상욱80 △서영길59 △서의석49
△서정훈97 △선병수81 △성운준05
△손계욱70 △손승래54 △송미화02

www.seoulfood.or.kr

ufi Approved Event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Logo with text: Cook to the Basic, Beyond the Best

SEOUL FOOD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3. 5. 14(Tue) ▶ 17(Fri) KINTEX

홈페이지를 통한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www.seoulfood.or.kr

Hall 1-2 서울국제식품기술전(B2B, 식품관련종사자만 참관 가능)

Hall 3-5 서울국제식품전(B2B, 식품관련종사자만 참관 가능)

Hall 7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B2C, 일반인 참관 가능)

※ 2013. 5. 15(수)~18(토) / 4일간

주최 | kotra | 공동주최 | KFFA ALLWORLD EXHIBITIONS kem

△송슬지⑤ △송영수① △송영찬⑥
△송현택④ △신건학⑤ △신동성④
△신상호④ △신현국⑥ △심용기⑤
△심재한⑤ △안상록⑥ △안재식③
△안정호⑥ △안준영② △양정훈②
△양희진② △여태승② △오 훈⑤
△우상렬② △원경식⑦ △원제혁⑤
△원지희④ △위정섭⑧ △유경진⑦
△유무웅⑤ △유병욱⑦ △유승현⑨
△유아람⑦ △유인봉⑤ △유택노②
△윤봉한④ △윤상철① △윤재준⑥
△이갑연③ △이경순⑥ △이경태⑤
△이국노⑧ △이규생⑦ △이규재④
△이동욱⑥ △이명식④ △이법철⑥
△이상순⑦ △이상현⑦ △이성기⑤
△이성실① △이수남⑥ △이승욱⑥
△이승욱⑤ △이신욱② △이연주③
△이영윤⑦ △이영창⑦ △이용희⑦
△이원진⑧ △이재범① △이재순⑦
△이재욱⑦ △이정준① △이정호⑥
△이종길⑦ △이종수⑥ △이창민②
△이창수⑧ △이태현⑤ △이학수③
△이현석⑨ △이현식⑧ △이호정⑥
△이호정⑥ △이화웅⑦ △이화준⑥
△이효일⑥ △임동조⑦ △임일택④
△임정명⑤ △임종엽⑤ △장근홍⑥
△장동근⑤ △장두희② △장문성⑤
△장선학④ △장옥룡② △장지현⑥
△장학순④ △정건식⑤ △정대환⑥
△정명진④ △정병일⑤ △정상진⑥
△정재관⑦ △정정운② △정진수⑦
△정지권⑥ △정태영⑦ △정해길⑥
△정현철⑤ △정형근⑦ △조래승⑥
△조용준② △조응현⑥ △조재준②
△조춘식⑦ △진영술⑦ △차석배③
△차석주⑧ △최광선④ △최규식⑥
△최명진⑧ △최석주① △최영태⑦
△최희철③ △하경표⑧ △하삼모⑧
△하종민⑤ △하태권⑥ △한건우⑤
△한광석⑥ △한상운⑧ △한상흥⑤
△한은근⑤ △한정빈③ △허 준④
△허 흥⑤ △허성운⑨ △홍성우③
△황인준⑤ △황인호⑤ △황호남⑦
◆농대 △강경원② △강광희⑦
△강남권⑧ △강원봉⑦ △강원우⑥
△고덕구⑦ △공민영⑤ △구능완⑥
△권혁세④ △김관선⑤ △김두만②
△김두식⑤ △김명록④ △김문규④
△김삼식⑤ △김영상⑤ △김용찬⑦
△김원훈④ △김윤조⑧ △김응년⑥
△김의철④ △김이기⑧ △김인철①
△김정교④ △김정기⑥ △김종천⑤
△김준평④ △김준호⑥ △김진구②
△김태희⑦ △김택구③ △김한태③
△남구한⑥ △남상운⑧ △노홍섭⑤
△류종렬⑦ △민두식④ △민영준④
△박남종④ △박동규⑥ △박상범②
△박선영② △박순석⑤ △박용길⑤
△박재룡⑤ △박재성⑤ △박정수⑥
△박종국⑦ △박찬구⑧ △박천운⑨
△배대환④ △백성규② △백응현④
△변영숙⑦ △서완수⑤ △석창건⑥
△손진규② △송기철⑦ △송다해⑦
△송삼석⑤ △송영달⑤ △송종관②
△송종익⑤ △심상래② △안의성⑥
△양법산⑤ △양철호⑧ △양춘웅⑥
△엄태영⑤ △오세훈⑤ △오준석⑦
△오현준⑥ △오흥석⑤ △우병국⑦
△유기성⑥ △유병후⑦ △유성곤⑥
△유신상⑥ △유영준⑤ △유종철⑦
△유향하⑥ △윤동면⑥ △윤병선⑦

△윤용근② △윤인화⑤ △윤창영⑦
△이계은⑤ △이광선⑦ △이상욱⑥
△이상호② △이성수⑦ △이수욱⑤
△이순실⑦ △이승찬⑥ △이원재⑧
△이중기⑤ △이창구⑥ △이춘녕③
△이한강⑥ △이희영⑤ △장낙연⑤
△장운용⑤ △전종갑⑦ △전현기④
△정관모④ △정도섭⑦ △정무남⑥
△정병기② △정승모⑤ △정승우②
△정연석④ △정연흥⑦ △정정택⑦
△정중수⑤ △정진욱⑥ △조규열②
△조선호④ △조성환① △진영호⑥
△최동열⑤ △최무재⑤ △최영대⑤
△최영주⑦ △최용현⑧ △최원철④
△최유지⑦ △하병찬⑦ △한상복④
△한석현② △한성식⑤ △한용규⑨
△한재용⑧ △한찬택② △한해룡⑤
△홍순홍⑤ △홍택영⑦
◆문리대 △강낙중⑥ △강석명⑥
△강신성⑤ △곽광수⑤ △곽영찬⑦
△구자홍③ △김광규⑥ △김기동⑥
△김동진⑥ △김명수④ △김선리④
△김성기⑥ △김수종⑥ △김영식④
△김영웅③ △김옥남② △김옥민⑤
△김용근⑤ △김용웅④ △김유석⑤
△김인관⑤ △김일송③ △김정숙⑤
△김종엽⑥ △김종휘⑥ △김준기⑥
△김중하⑦ △김진석⑤ △김철용④
△김태욱⑤ △김한도⑥ △김형련⑥
△김형호⑤ △김홍수⑦ △남기흥⑦
△박상태⑤ △박옥출④ △박인국⑦
△박종관⑥ △박종민④ △박찬범⑥
△박태룡⑥ △박홍규⑥ △변광수⑥
△변창명⑥ △서세창⑤ △서창모⑥
△성만웅⑤ △소광희⑤ △손후엽⑥
△송병찬⑤ △송병희① △송하영⑤
△신동철⑤ △심수보⑥ △안상경④
△우창웅② △원용우⑥ △윤병석②
△윤석태⑥ △윤영탁⑥ △윤용진⑤
△윤임구⑥ △윤재문③ △윤하정④
△이 강⑤ △이광열⑦ △이광웅⑤
△이규일⑤ △이규증⑤ △이돈형⑤
△이범주④ △이상진⑥ △이성재⑤
△이시종⑥ △이연희① △이원희⑤
△이재술⑦ △이정민⑤ △이정숙⑦
△이정훈⑦ △이종무⑤ △이종인④
△이중길⑥ △이진희④ △이창훈④
△이춘기④ △이택주⑥ △이평우④
△이해정④ △임희완⑤ △장효희②
△전만수⑤ △전석홍④ △정국록⑦
△정기인⑥ △정서구⑥ △정서웅⑥
△정태식⑥ △조계진④ △조영수④
△지정택⑦ △차상철⑥ △천병희⑥
△천승걸⑤ △최 진⑤ △최 흥⑥
△최남준⑥ △최명근⑦ △최복석⑥
△최선록⑤ △최승일⑥ △최연균⑥
△최영길⑤ △추호경⑥ △하인경⑥
△하인경⑥ △한창호⑥ △허두표⑥
△홍경화④ △홍승표⑤ △홍성호⑤
△황원섭④ △황의박③ △황종철⑦
◆미대 △강웅기④ △강정원⑨
△권순형④ △금기원⑥ △김충경④
△김현정⑧ △김호걸⑤ △박소영⑦
△서주희⑧ △윤선이⑧ △윤영출⑧
△윤옥진④ △이상은⑥ △이주현⑧
△정상원⑤ △조 윤⑤ △조재구⑥
△채정은⑧ △최연희⑥ △허수영⑨
△현숙자⑥ △홍경희⑥
◆법대 △강승구⑧ △강이수⑤
△강진성⑤ △고왕석⑥ △고재화⑥
△구자순⑤ △권종철⑦ △권지용④

△김 숙⑥ △김 욱⑥ △김국진⑥
△김근태④ △김기경⑤ △김기수⑤
△김명진⑦ △김무길⑤ △김봉환⑥
△김복지④ △김상구⑤ △김석재⑧
△김성룡⑥ △김성업③ △김시형⑤
△김영광④ △김영삼⑥ △김용제⑤
△김용환② △김윤철④ △김유택⑤
△김재규④ △김정유④ △김정환⑤
△김준섭④ △김창국⑥ △김창근⑤
△김해산⑦ △김혜수⑦ △김홍재⑤
△김희용⑥ △나재영⑦ △노명준⑦
△노부호⑦ △류재신④ △문상일④
△박강희③ △박승준⑧ △박영석⑥
△박익환⑧ △박인환⑤ △박태호⑦
△반성우⑤ △배중화⑦ △배진민⑤
△백덕열⑦ △변재승⑥ △서주홍⑦
△석석환④ △손상민② △손재식②
△손제연⑧ △송남석⑤ △송세빈⑧
△신 신⑤ △신성오⑥ △신은철⑧
△신호양⑤ △안기영③ △안재영⑦
△오석환⑤ △오영진⑤ △유재성⑤
△유해돈⑤ △윤형한⑥ △이교선⑤
△이권형⑥ △이대우⑦ △이두아⑧
△이상용⑦ △이상준⑥ △이상철⑦
△이승환⑤ △이양순⑤ △이용규⑧
△이원기⑧ △이유진⑥ △이재충⑦
△이재홍⑦ △이종환⑤ △이태윤⑤
△임상현⑤ △장상재⑤ △장정우⑧
△장지용⑦ △전태환④ △정원진⑧
△정은영⑤ △정인숙⑧ △정재일②
△정장섭⑦ △정혜경③ △조경래⑤

△조근호⑦ △조성일⑥ △조영목②
△조영진⑥ △조왕제⑤ △조주순⑥
△조주운⑥ △조지만⑨ △진동수⑦
△최강호⑦ △최세운① △최영룡⑦
△최형준⑤ △허준석⑤ △한 경⑦
△한동우⑥ △한상술⑤ △한용기⑥
△한찬식⑥ △함민식⑤ △허 군④
△허만조④ △허승태⑦ △호영진⑥
◆사대 △강철민⑥ △고준식⑤
△구사용⑤ △권오룡⑥ △김명수⑥
△김병국⑥ △김병식⑧ △김봉호⑥
△김상수⑦ △김수연⑦ △김영석④
△김영철④ △김예기④ △김용복⑦
△김용승⑥ △김용일⑤ △김유명⑥
△김재성⑦ △김준환⑥ △김준호⑤
△김중호⑥ △김진원⑥ △김창걸⑥
△김채현⑦ △김형구⑥ △김화인④
△민해식② △박갑순② △박영배④
△박윤근⑤ △박인호③ △박준순②
△박정남⑦ △박종서⑦ △박종식⑦
△박주해⑤ △박지영⑦ △박춘진⑦
△박현수⑦ △봉정모⑦ △서 혁②
△서인경⑤ △서인경⑤ △서태근⑥
△석경정⑥ △성기종④ △손종국⑤
△송복주⑤ △송은경⑥ △신동순⑤
△신명자⑥ △신승기③ △신용국⑤
△신태우⑤ △신흥균⑤ △안영숙②
△안운신⑤ △안재석⑥ △엄동일③
△오진경③ △온기수⑦ △우인섭④
△유기웅⑤ △유명수⑥ △유민영⑦
△유양선⑥ △유완수⑤ △윤미희③

△윤석오④ △윤성렬⑥ △윤희태⑨
△이기혁⑥ △이계숙④ △이규식⑤
△이기종⑤ △이기충⑤ △이병무②
△이병선⑤ △이상경⑤ △이석주⑥
△이성구④ △이성규⑦ △이성호⑤
△이순권⑥ △이승립⑥ △이영주⑥
△이정태⑦ △이종명④ △이주욱⑦
△이진영⑤ △이창국⑥ △이충현⑧
△이흥종④ △임원종② △임찬희⑦
△임현소⑥ △장병덕③ △장선식⑤
△전명수⑤ △전수남⑤ △전형주⑧
△전혜연⑦ △정근훈④ △정문환⑥
△정복래④ △정영호② △정운근⑦
△조민식⑤ △조주현④ △조현철②
△조희식④ △주봉노⑤ △주태진⑦
△차도완⑤ △최다아⑦ △최병호⑦
△최원규⑤ △최윤경③ △최익규⑤
△최정현④ △최희주② △한상현⑥
△한원영④ △함희동④ △허진란③
△현영희⑦ △홍정희⑤ △황광수⑥
◆상대 △강경수⑤ △구의일⑥
△김경렬③ △김경원⑥ △김광욱⑦
△김병근⑥ △김병기④ △김상경⑥
△김상남⑥ △김상희⑥ △김선태⑥
△김성주⑤ △김송자⑤ △김승경⑤
△김연조⑥ △김용은③ △김용렬④
△김은수⑤ △김인기② △김정웅⑥
△김정환⑥ △김종원⑥ △김종해⑤
△김종희⑤ △김진주⑥ △노병태⑥
△문학모⑤ △민병훈⑥ △박경석③
△박광철⑥ △박기환⑥ △박대평⑤



www.krs.co.kr

Your dependable class partner

KR은 미래해양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글로벌리더인 당신께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Smart KR 주요 업무

- 선박검사
- 기자재검사
- ISO/ISM/ISPS 심사
-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도면심사
- 신재생에너지, 환경 및 제3자 검사
- 산업설비 및 기기안전도 검사
- 해군함정 안전도 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사)한국선급, 우편번호: 618-814

△박봉흠68 △박영우58 △박종환49
△박좌용48 △박풍아62 △배선홍49
△배종섭58 △백지근49 △성백규52
△손경수56 △심남진49 △심준보55
△여윤봉57 △오기화57 △오정환54
△오정현54 △유방장61 △유병무64
△윤록현59 △윤여훈67 △윤하균55
△이건재52 △이경모52 △이국훈60
△이명기59 △이병국52 △이성위61
△이세장55 △이영세44 △이영호46
△이재등57 △이종수64 △이흥근70
△임영식57 △임정일62 △전수영57
△전창기57 △정경완55 △정문화71
△정봉수66 △정세진53 △정연덕50
△정인성71 △정재두53 △조 원56
△조동화55 △조현문58 △진창갑54
△채규원51 △채수환56 △최병완57
△최익재68 △추준석67 △허 석59
△허재경56 △허재원56 △홍성표59
△홍순대55
◆생활대 △강창자57 △곽정현04
△김경애66 △김남미73 △김윤정93
△김은정08 △김정주56 △박미연04
△박주희85 △배수향90 △안영희57
△엄윤경78 △오현숙68 △윤순건05
△윤혜원82 △이상의56 △이아름05
△임인순58 △조정애57 △조혜자60
△채미희77 △최규순61 △하승연05
◆수의대 △강구환74 △강석주55
△고의식56 △구연강62 △김동우08
△김명석08 △김명중59 △김배원60
△김선일63 △김세훈97 △김종건65
△김종면52 △박내정63 △박만규50
△박만택52 △박응복48 △박현기66
△백영환56 △송남훈64 △송지용83
△신현덕80 △예재길72 △오동훈08
△오화균88 △원병희60 △윤병필92
△윤영원63 △이강훈58 △이완준62
△이학범06 △임준기77 △정용민53
△정윤섭55 △정진화52 △조병왕61
△조수식52 △최성호57 △최영식61
△홍두표55
◆약대 △강내영82 △공영석57
△공현표67 △김만국47 △김상년59
△김수영98 △김의영80 △김태윤55
△김학균51 △김현욱57 △김혜자55
△김홍대59 △김홍집57 △박선희05

△백희정07 △변은자51 △서길향00
△서남현59 △송나래05 △송승희99
△심은숙51 △윤은정03 △윤형중57
△윤홍중55 △이동악57 △이만재56
△이문형47 △이병국55 △이상구58
△이상준61 △이일영56 △이재은55
△이홍희81 △장봉수61 △정상철52
△정연심54 △조지웅53 △주춘대54
△차민정03 △천길순52 △최건혁70
△최경희54 △최수영79 △한방숙66
△허 용47
◆음대 △고윤화98 △김기홍80
△김순옥73 △김영숙85 △김은경57
△방통일72 △서수민97 △서은령80
△성양자60 △신혜주76 △심현숙73
△엄미연96 △오동일54 △오미혜71
△유봉우74 △윤제상78 △이동남66
△이신희70 △이영민01 △이영자56
△장창환58 △정은희87 △정자와03
△채완병58 △한애화84 △홍명숙74
◆의대 △강관철69 △강정후70
△강진화80 △구분희54 △권영길47
△김득구50 △김병엽50 △김선민00
△김예희53 △김원희56 △김종박59
△김종우69 △김청수68 △김현경99
△김현정03 △김희정07 △남광현58
△남궁견67 △남상민85 △노효근56
△도병욱83 △박신근61 △박용재65
△박지명08 △반재상88 △서정기67
△서창석79 △송인배73 △신성우47
△웅상길58 △유 준41 △유언호54
△유준근71 △윤병란79 △이경욱58
△이덕수55 △이상완55 △이언복52
△이제룡50 △이종주57 △이준걸88
△이진오58 △이훈용72 △임승재75
△임형석81 △장운삼45 △정 석04
△조승현45 △조환익61 △주원식76
△주정화52 △차왈보53 △최병취73
△최승호08 △최혜령03 △하재동51
△한승석01 △한정규98 △홍혜경97
◆치대 △강우곤64 △강인희77
△김교식72 △김상세60 △김선일58
△김성범04 △김시영00 △김연만55
△김용상61 △김정균59 △김정자59
△김종화99 △김철위57 △김현덕75
△김화봉77 △김화춘59 △남경수96
△박동귀55 △박승오62 △박인자63

△박재간79 △백위현66 △안순찬83
△염경철61 △오인식56 △유동수52
△윤훈용53 △이경모76 △이규승58
△이병윤53 △이수백70 △이승연61
△이영달55 △이영희56 △임성균59
△임형우57 △장기산57 △조달문68
△조상래83 △조영선53 △조영진82
△조창홍46 △차영남67 △최진규87
△최홍식83 △한건웅61 △한보균69
△허정규62 △홍현중82
◆대학원 △권경필96 △김동선59
△김삼수87 △김석기03 △박재황81
△양기주95 △양재욱85 △우은주78
△이건수89 △장인철81 △정성렬85
△조재연82 △최연희83 △최윤정04
◆경대원 △권영천66 △이정준95
△장만기66
◆교대원 △정월용73 △황현익65
◆국대원 △박지훈05
◆보대원 △강혜경80 △구근희67
△김귀향79 △김종만62 △김주희72
△김학기76 △박덕성75 △박주홍86
△반정욱60 △방옥균85 △송경섭69
△신금호72 △유용래85 △이영현08
△이현영03 △한서경65 △황금복76
◆신대원 △김기도72 △맹태균75
△윤임술69
◆행대원 △강병규77 △강인준71
△김경섭73 △김석균92 △김재윤83
△김진근08 △김한균71 △박성룡10
△박성환84 △박완신77 △박찬도64
△성낙승69 △양준철83 △이상설65
△이주석84 △이충열95 △장완호95
△정시영93 △조경규87 △최석식83
◆한대원 △박은혜08 △신언교87
△윤진수96 △이춘택71 △장재민07
◆AMP △가갑순18 △고희선41
△곽덕근54 △구종태45 △김광수45
△김석중63 △김선홍14 △김성환25
△김영광65 △김영훈49 △김우전7
△김원길73 △김정국14 △김정규24
△김종길29 △김중성39 △민영복42
△박병진70 △박인석53 △박정욱72
△박준택70 △방상우31 △변차섭66
△신우식24 △신종식64 △유영결26
△유준웅31 △이강남44 △이병달28
△이영주5 △이종철10 △이철우58

△임성규73 △임창건59 △장영섭14
△전동근11 △정공식63 △정기택31
△정동락52 △정형택6 △정희원60
△조석제62 △천광찬28 △최대업31
△최병면41 △최병택6 △최상득17
△최영철20 △최용목53 △최인호12
△최종원16 △한지훈54
◆AIP △고순란47 △곽문연8
△구왕현12 △김수기14 △김순택6
△김영선2 △김형일41 △나재암7
△노완구18 △류원우44 △박노택44
△박영욱15 △박영욱15 △엄성욱47
△오 현5 △유춘종14 △이석원36
△이세광43 △이중기5 △이현영8
△정주용37 △조일래41 △조종제14
△조창식45 △지경택4 △진영환9
△차정웅18 △최평욱7 △한옥문45
△허문영18
◆ACAD △김덕영18 △김상렬58
△김승영43 △김형복27 △노정기36
△류근환13 △문동신55 △박기철39
△박만윤40 △박정구38 △박형구72
△손재권73 △손정식44 △송원순72
△심재금73 △안승우38 △안신환34
△오시철7 △유병국30 △윤용인21
△이강연27 △이상철33 △이영기27
△이태영11 △전해성33 △최병길11
△최창권66 △황계윤73
◆ABP △구태근7 △박귀남28
△변정섭14 △손기석39 △송기덕23
△유영희39 △이상락4 △황승환30
◆SGS △배기용4 △옥병덕24
△유금중3 △이강웅28 △이창복13
△임영화27 △정해순3 △차원갑5
△최병진20
◆APC △김경수10 △김남중10
△박동근18 △서평근5 △손일근3
△신태식11 △안무경4 △유형태14
△이갑성18 △이강환18 △이범희3
△이영세4 △이우진4 △정민혁16
△조성구7 △조재호10 △최상현18
△최준하11
◆HPM △김동량27 △김명중6
△김병민25 △배종성27 △신동열28
△심삼배28 △이신락23 △이은정14
△이정현9 △전영숙5 △정동윤9
◆AMPP △김명남5 △김상욱7

△김춘곤12 △부원찬13 △유병무11
△이신복1 △이영석5 △이태규13
△장필순10 △전제원12 △정성훈10
△최익현2
◆AIC △권성욱8 △김인기2
△박 훈12 △박병후10 △이종대18
△이현태21 △임상선31 △정장환11
△한기식27 △한상기5
◆AFB △김유순9 △류형우9
△민선기7 △박희성12 △방주득11
△안순율8 △양기태7 △주호필12
△최낙종12 △표재홍9
◆AMPFRI △김정주2 △양동수6
△전병기19
◆ACPM △박현일8 △유정환7
△정동현8
◆FIP △이신호7 △조진표9
◆GLP △김상복21 △김종길19
△박욱영14 △박정동24 △박관관21
△서재섭24 △송병원20 △심상운14
△이준형11 △이창의14 △이형훈22
△정학섭15 △허영무23
◆ALP △김수원16 △박경훈16
△이승림11
◆SPARC △김성수1 △이성영5
◆AFP △송인회2 △이우공9
△하현희5
◆ASP △노경학21 △박홍태6
△이두호4 △조성목23 △최종혁12
◆IFP △권영용6 △백종화2
△최귀학3
◆BCP △김차윤9 △오영호2
◆ABKI △김진목1

분 담 금

◆시드니지부 1백만원

2013년 3월	
연 회 비	58,950,000
평생회비	39,870,000
입 회 비	712,000
분 담 금	1,000,000
계	100,532,000
2013년 누계	386,532,000



신선한 아메리카노가 있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아메리카노를 위해, 카누는 직접 로스팅합니다

Maxim.

KANU

The Smallest Cafe in the world



고품질 커피 파우더로 더욱 향기롭게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한 고품질 커피원액을
사용해서 커피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마이크로 그라인딩으로 더욱 신선하게
갓 볶은 원두를 -196℃에서 급게 갈아 넣어
원두의 신선함과 풍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일로스슈거로 더욱 건강하게
물에 흡수되는 설탕의 양을 줄여주어
달콤한 맛에 건강함까지 더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스무살 우리캠퍼스 5기 - 이종원, 김미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할 때도
우리은행이야말로 우리세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참 금융!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우리청년전용창업대출

- 당신의 꿈, 우리가 키워드립니다!

● 우리신세대통장

- 스마트세대를 위한 금리우대 통장 -

● 우리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 우리 청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우리신세대통장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읽어보시고,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02-2008-5000)에 문의바랍니다.
(2013.02.22 준법-0170 심익필)

우리나라  우리은행



LG전자







더 또렷한 G











더 환상인 G





















더 신나는 G













더 함께한 G



